

## “유엔인권이사국인 中, 北 인권 개선 위해 영향력 행사를”

‘탈북민 강제복송반대 범국민연합’, 강제복송 반대 기자회견

강제복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에스 더기도운동 등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 강제복송반대 범국민연합’이 17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복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상명에서 “지난 10월 15일 국제적인 NGO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정부가 2024년 이후 최소 406명의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시켰다고 발표했다”며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에 대한 시위가 있는 이후 2024년 1월 108명의 노동자들이 북한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고, 동년 4월에는 인신매매 피해 여성 212명과 함께 60명의 탈북민들이 강제송환됐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2023년 10월 9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끝난 다음 날 군사적인

하듯이 야밤에 600여명의 탈북민들을 전격 강제복송시킨 바”라며 “이로써 중국 정부는 2년 만에 천 명이 넘는 탈북민들을 강제송환한 사건”이라고 했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복송은 고문, 부당 감금, 성폭력, 강제노역, 처형 등 송환자들을 심각한 위협에 노출시키며, 이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불법적인 강제송환에 책임 있는 중국 정부 관료들은 감정은 독재정권 하에서 자행되는 범죄를 지원한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중국 정부의 만행을 규탄했다”고 했다.

이들은 “2010년 북한 인민보안성은 주민들의 탈북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반역죄’로 규정하는 포고령을 채택했다”며 “그러므로 북한 주민들은 탈출 동거나 사전 박해 여부와 무관하게 무단 국경 이탈 행위 자체로 난민 지위를 부여 받을



‘탈북민 강제복송반대 범국민연합’이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복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최 측 제공

수 있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2014년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조직적으로 고문, 성폭력, 강제노역, 강제실종, 비인간적인 구금 환경 등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처해진다”며 “조사위원회는 탈북민의 검거와 송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조력은 그러한 범죄의 공모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했다.

이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5년 9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십여 년간 복송된 사람들은 자의적 감금, 고문, 부당한 대우, 강제실종, 성폭력 및 첩보활동 등 심각한 인권탄압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각국 정부가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심각한 인권탄압을 받을 실질적인 위협성을 고려하여 일관되게

강제송환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 의정서 그리고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이다. 박해나 고문의 실질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국가로는 누구도 강제송환하지 않을 법적 의무가 있다”며 “게다가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며,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인권 문제 개선에 있어서는 어느 국가보다도 솔선수범해야 하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라고 했다.

국민연합은 “중국 정부가 국제법을 무시하며 반인도적 범죄에 조력한다면 세계인들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세계인들은 중국을 보이콧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국인들은 반문명국가 국민으로 오명을 쓰게 될 것이고 중국은 유엔 이사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도적인 지위들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므로 중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억류한 탈북민들을 모두 석방하고 그들이 원하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또한 중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 땅에서 탈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억압적인 상황을 종식시킬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중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부정적인 인식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중국 정부를 향해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강제 구금된 탈북민을 모두 석방하고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김진영 기자

## “복음 처음 들어온 인천에서 민족복음화 새 불길 타오를 것”

민족복음화 인천본부 발대식 및 대표본부장 취임감사예배 열려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총재 이태희 목사)가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316교회(담임 박용배 목사)에서 ‘인천광역시 본부 발대식 및 대표본부장 취임감사예배’를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2027년에 예정된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를 향한 전국 조직 확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대표본부장 박용배 목사, 총괄본부장 라건국 목사, 상임본부장 박병철·박흥부·이준남·홍철웅·김진강·한정관 목사, 그리고 사무총장 김영돈 목사가 총재 이태희 목사에게서 취임패를 받았다.

대표본부장으로 취임한 박용배 목사는

“하나님께서 인천을 택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 140여 년 전 이 땅 인천 제물포항으로 복음이 처음 들어와 한국교회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이제 다시 그 인천에서 ‘민족복음화’의 새로운 불길이 타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의 회복”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제 인천본부는 민족과 열방을 향한 복음의 전진기지로 세워질 것”이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정치적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강조했다.

총괄본부장은 라건국 목사는 “복음의 생명력이 다시 한반도와 열방으로 확산되도록 모든 교회와 지도자들이 하나 되어 기도의 무릎을 꿇겠다”며 “성령의 대부흥운동이 전국으로, 더 나아가 세계로 확산되기를 소망한다”는 이 믿음 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예배에서 ‘네 민족을 구원하라’(사도행전 18)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태희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는 “우리가 바울 사도의 심령만 가지면 민족복음

화는 꼭 우리 시대에 이뤄질 줄 믿는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가능할 것”이라며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그것이 시작되는 역사적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오늘날 소명의식을 갖고 사명감에 불타는 목회자들을 찾기가 힘들어졌다. 부디 오늘 취임하시는 모든 분들이 철저한 소명의식과 불타는 사명감을 갖고 인천을 복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2027년까지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제 목표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예배에선 라건국 목사(총괄본부장)의 인도로 박병철 목사(상임본부장)가 기도했으며, 한정관 목사(상임본부장)가 성경을 봉독했다. 설교한 이태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뒤 김영돈 목사(사무총장)의 사회로 취임식을 진행했다.

취임식은 취임패 증정, 박용배 목사(대표본부장)의 감사인사, 김병호(연구원장·부총재)·양준원(성회 사무총장)·손재경(기획본부장)·장준식(상임부총재)·이성화(민북 부천본부 대표본부장)·노희석(예성증경회장, 서울강동지역교회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의 축사 및 격려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는 1907년 평양대부흥 120주년과 1977년 민족복음화대성회 50주년을 기념하는 성회로, 현재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총재 이태희 목사)가 중심이 돼 준비되고 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1907년 평양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됐다”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와 성령운동으로 불붙기 시작한 평양대부흥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한국교회를 일제의 어둠에서 깨웠다. 모든 백성들과 선각자들이 일어나 대한독립을 외쳤다”고 했다.

이들은 “973년 ‘빌리 그레함 서울전도대회’는 한국교회 역사상 일일 100만 명이 모인 큰 집회였다”고 했다.

이어 “1974년, 한국대학생선교회 대표 김준곤 목사와 세계대학생총연맹 빌 브라이트 박사와 합의해 여의도광장에서 ‘엑스플로 74 전도대회’를 개최했다”며 “하루 평균 130만 명이 모여 청년 복음화를 위해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며, 사명을 다 집했다. 나라의 미래인 수많은 청년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77민족복음화대성회는 하루



민족복음화 인천본부 발대식 및 대표본부장 취임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인 이태희 목사(왼쪽)가 인천 본부 대표본부장인 박용배 목사(오른쪽)에게 취임패를 전달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인 이태희 목사(왼쪽)가 인천 본부 총괄본부장인 라건국 목사(오른쪽)에게 취임패를 전달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단일 인파 중 가장 많은 180만 명까지 모여 영적권은 75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성회를 통해 2만5천 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의 복음화

를 위해 모든 교파와 교단, 교회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며 “이제 우리 모두가 민족구원이라는 대명제 앞에 하나가 되어 한국교회를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 용산 처음이자 마지막 주택수 제외 실투자금 1억원대 투룸 오피스텔 분양

현대자동차연구소  
(착중)

용산국제업무지구  
(착공예정)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전자상가 철거중)

용산역

호창공원앞역

1 용산역

4 신용산역

GTX-B  
(배정)

신대저전역  
(배정)

KTX

경의중앙선

GRAND OPEN  
선착순 분양

### 비교 불가! 오피스텔 위치 끝판왕

아시아 실리콘밸리 착공 / 용산 철도 지하화 개발  
현대차 모빌리티 연구소 착공 / 국제업무지구 착공 예정  
대한민국 핵심지역! / 대체불가 위치 오피스텔

### 압도적 스펙 그 어떤 곳과도 다릅니다

프리미엄 발렛 / IoT 시스템 스마트 미러 / 25cm 더 높은  
충고와 개방감 / 프라이빗 피트니스

### 이런 분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일체 수익 극대화 원하는 분 / 개발호재로 시세차익을 원하는 분  
주택수 부담없이 추가 투자 원하는 분

### 자신있게 말씀 드립니다

용산 마지막 1억대 투룸 투자 / 한시적 제공되는 주택수 제외  
망설이는 순간 용산에서 다신 기회 없습니다

분양문의

02-757-3000

홍보관 주소: 용산구 서빙고로 17, 1층(센트럴파크타워)







# “AI시대 혼란 속도 하나님 주권 변함없어”

수영로교회, 15일 50주년 기념 제6회 전국청년사역 컨퍼런스 개최

부산 수영로교회(담임 이규현 목사)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최근 본관 2층 은 해를에서 제6회 전국청년사역 컨퍼런스 “Walk With Worth”를 개최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초지능 AI의 부상으로 청년 세대가 겪는 신앙적·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국 각지의 청년 및 사역자들이 참석해 복음적 가치와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을 모색했다.

먼저 아이자야 식스티원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집회는 첫째 메인강의로 미래학자인 아시아미래연구소 소장 최윤식 박사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신학적 관점에서 조명했다.

최 박사는 최근 등장한 ‘01-딥시크(DeepSeek)’ 모델을 언급하며 “이미 박사 학위 수준의 전문 지식에 도달했고, 2-3년 안에는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 수준

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창의력과 추론 능력도 인간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있다”며 “생트먼은 ‘수천일, 대략 10년 안에 초지능(Superintelligence)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노동 시장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일자리 불안은 이미 현실적 문제로 등장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러나 그는 “AI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변함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연처럼 보이는 기술 발전조차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주권적으로 다스릴 받고 있다.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이어 성경적 인간론을 언급하며 “성경은 인간을 성선설·성악설·성무선악설로 설명하지 않는다. 인간은 죄인



아이자야 식스티원이 찬양을 인도하고 있다. ©수영로교회

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받은 존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엄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또한 AI 기술의 기원에 대해 “신8:17-18, 전5:19, 전2:26, 출35:31-35은 기술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말한다”며

“칼빈 역시 모든 천부적 재능은 하나님의 ‘일반 은사’로서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은 가치중립적이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특별 은사를 주셨다.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난 ‘다스림’ 책임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박사는 “AI는 하나님이 일반 은사로 주신 영역이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를 선용하도록 다스릴 책임이 있다”며 “AI로 인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의 또다른 메인강연자로



참석자들이 찬양하는 모습. ©수영로교회

김명규 목사(홍대씨앗교회·FNC엔터테인먼트 사목)가 나섰다.

아울러 아이자야 식스티원, 김초롱 작가, 이진아 대표, 윤재덕 소장, 송준기 목사, 이종필 목사, 오기훈 목사, 남빈 목사 등 다양한 분야의 섹션 강사들이 참여해 청년 사역, 기독교 세계관, 콘텐츠·문화 영역, 리더십과 영성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었다.

각 강의에서는 복음적 가치관에 근거한 청년 사역 전략, 선교적 삶의 회복, 디지털 시대의 신앙 훈련, 청년 문화의 이해와 사역의 현장 적용 등이 논의되었다.

컨퍼런스는 거센 시대적 변화 속에서 청년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주최 측은

“문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답이 있으며, 그 답은 흔들리지 않는 복음적 가치”라며 “청년들이 시대의 혼란을 뚫고 선교적 삶을 살아내기 위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에게는 혼돈을 돌파하는 영성과 야성이 필요하다”며 “시대를 분별하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시키는 강력한 예배와 복음적 세계관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센 시대적 도전 속에서 기독교 청년들이 고립되지 않고 함께 연합해야 한다”며 “복음적 가치(Worth)를 붙잡고 세상 속으로 함께(With) 걸어갈(Walk)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청년 부흥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노형구 기자

## 한기총 임원회, 김정환 목사 제명 결의

질서위 보고 그대로 받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가 최근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36-9차 임원회(긴급)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참석 27명, 위임 33명으로 성원됐으며, 개회선언, 전회 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신규 회원 가입의 건으로 실사위원회(위원장 안이영 목사)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과를 보고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총회(경기, 총회장 김영희 목사),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대표 박동찬 목사),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회장 송기섭 목사)에 대해 가입을 심의, 의결하고 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총회(경기도)는 회비 미납으로 회원권을 상실했다가 복귀하는 것으로 제36-1차 임원회 결의에 따라, 이번 임원회 결정으로 복귀된 것이며, 임원회 결의가 없이 복귀한 교단에 대해서는 정식 절차를 밟고 난 후 임원회의결을 득할 것을 결의했다.

질서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정관과 운영세칙 등에 따라, 한기총의 질서와 도덕성,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신뢰성과 윤리성을 상실하고, 한기총의 질서와 공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김정환 목사를 제명하고, 실체가 불분명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반식), 한국교회단체협의회를 제명”하기로 한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했다.

질서위원회는 징계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본회로 접수된 ‘조사 및 징계 요청서’에 대해 김정환 목사는 ‘사무총장’과 관련된 사안으로 “본인의 사무총장 지위가 박탈됐음을 주장한다면, 한기총은 어



한기총 제36-9차 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기총

떠한 조사 권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무총장은 본래 한기총의 재정과 행정 전반을 관리·집행하는 책임 있는 직분으로, 김정환 목사는 재정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사무총장직을 상실했고, 한기총의 공적 신뢰와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② 모 교회에서 유포 중인 문서와 영상에 대해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제경매에 대한 건을 자료로 제출했으나, 강제경매의 시기와 문제의 문서와 영상의 시기가 다르고, 실제 금품을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③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내부절차’를 통한 이의제기 없이 사회 법정 혹은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존 징계에 3배의 징계를 추가하는 것(현재 진행되는 소송 및 고발 건을 포함하여 소급해서 적용)을 임원회 결의(5월 2일 제35-2차 임원회, 6월 18일 제35-3차 임원회), 실행위원회 보고(6월 18일 제35-1차 실행위원회), 임시총회 보고(6월 27일 제35-1차 임시총회)로 통과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내부절차를

통한 이의제기도 없이 민사소송을 남발하여 한기총의 질서를 훼손시킨 점이 확인됐다.

④ 김정환 목사가 총회장 및 단체장으로 있는 총회, 단체의 사무실을 실제 운영하는 당사자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해당 총회나 단체가 사용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 바, 김정환 목사의 총회나 단체가 실제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한국교회 대표인 단체(한기총)가 누가 보더라도 박수 받는 단체가 되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면서 “외부에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이제는 한기총과 함께하고, 힘을 보태줬다고 했다. 한기총과 그 모습을 따라가자는 말을 듣는 날이 조만간 오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인사했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공동회장 윤광모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합동근 목사가 기도했고, 증경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발립보서 4장 1절 본문, “군게 서서 군게 잡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회의는 공동회장 심하복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김진영 기자

## 기하성·예장백석, 통합 논의… 거대 교단 탄생하나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기하성)가 최근 정기임원회 및 상임운영위원회를 열고 예장백석총회(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와의 공식 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장 백석총회 역시 내년 통합총회 개최를 목표로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양 교단의 통합 논의는 초기 단계에서 본격 실행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두 교단이 실제로 통합에 이를 경우, 약 2만 교회 규모의 거대 교단이 탄생하게 돼 한국교회 전체의 교단 구도에 중대한 재편이 예상된다. 기하성과 백석 양측은 각각 오순절과 장로교를 대표하는 대형 교단으로, 이번 논의는 단순한 협력 수준을 넘어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선교·교육·사회참여 등 공동 사역에서 연합 구



과거 한교총 정기총회에서 직전 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오른쪽)가 장종현 신임 대표회장에게 취임패를 전달하던 모습. ©기독일보DB

조를 구축하는 ‘선교적 연합체’ 구상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국교회가 직면한 인구 감소, 세대 간 단절, 사회적 신뢰 약화 등의 현실에서 두 교단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양 교단 내부에 형성된 것

이 통합 논의의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하성은 통합 논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확대임원회를 개최하고, 정동균 총회장을 비롯해 엄진용·양승호 부총회장, 강인선 총무를 공식 협상위원으로 선임했다. 백석총회 또한 통합을 위한 실무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계에서는 양 교단의 결합이 성사될 경우 외형 확대를 넘어, 한국교회가 여러 갈래로 분열된 구조를 재정비하고 대사회적 영향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양 교단이 각기 다른 역사와 교회정체 체계를 갖고 있는 만큼, 실제 통합 과정에서 조직 구성, 제도 통합 방식, 사역 조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형구 기자

당신 주변에는  
LS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뒤에는 LS가 있습니다



Everywhere  
you live and work

LS

<전력 공급 및 제어 시스템>

<해저 전력케이블>







## “무고한 생명 희생 안 돼”… 탄자니아 선거 폭력에 교회들 일제히 규탄

## 최대 3천명 사망 추정 속 정부에 즉각적 폭력 중단·독립조사 요구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탄자니아에서 논란이 된 전국 선거 이후 폭력 사태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탄자니아 주요 교회 단체들이 강력한 우려와 비판을 표명했다고 1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세계교회협의회(WCC, 탄자니아 복음루터교회(ELCT), 로마가톨릭 주교단 등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해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태를 “국가적도덕적 적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치러진 선거와 그 후 이어진 시위 과정에서 최대 3,000명이 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사망했으며 300명 이상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즉각적인 실탄 사용 중단, 기본권 회복, 독립적 조사 기구 설치를 요구하며 탄자니아 정부의 강경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6백만 명 이상의 교인을 가진 ELCT의 총회장 알렉스 게하즈 말라수사 감독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우리의 존엄과 가치, 인류애를 깊이 훼손한 비극”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위로 인한 사망과 실종, 광범위한 재산 손실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어떠한 정치적 과정도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WCC 제리 필레이 총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다”며, 탄자니

아 정부에 즉각적인 폭력 중단과 실탄 사용 금지를 요구했다. 그는 “시민들이 인터넷 차단 속에 억압당하고, 대규모 체포와 위협이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는 깊은 충격”이라며, 기본적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CDI는 탄자니아 정부가 아직 정확한 사망자나 체포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선거 후 인터넷을 전면 차단해 정보 검증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논란 속에서 사미아 술루후 대통령이 98%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된 것으로 발표됐으며, 인권과 시민사회는 이를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선거를 관찰한 아프리카연합(AU)은

선거 전후의 ‘깜빡위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AU는 선거 전 야당 지도자 체포, 일부 지역에서의 투표 방해, 선거 당일 인터넷 차단 등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우려를 표했다.

WCC는 지역 국가들이 탄자니아가 진  
실책임화해의 과정을 평화적으로 수행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탄자니아기독교협의회(CCT)와 각 신앙  
단체들이 긴장 고조 상황 속에서 대화  
와 화해를 촉구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  
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CDI는 케냐 오순절 연합체인 '펜테코  
스털 보이스 오브 케냐(PVK)'는 탄자니

아 내 케냐 국적자에 대한 체포·폭력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즉각적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빌 올렌보 PVK 총무는 “동아프리카 이웃 국가들이 유엔과 지역 인권 규범에 따라 케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탄자니아 안팎의 교외 지도자들은 이번 사태가 더 큰 폭력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투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들은 “교회와 예언자서 사명은 억압받든 자들과 함께 자서 진실을 말하고, 자유와 회복을 향해 국민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연 기자

## 나이지리아 목회자, ‘집단학살’ 경고 후 살해 위협 직면

극단주의 공격 영상 공개 후 협박 급증...  
교계 지도자들 “조직적 박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네셔널(CDI)은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학살 실태를 공개적으로 알린 한 목회자가 극단주의 세력으로부터 지속적인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플래토(Plateau)주 바르킨 라디(Barkin Ladi) 지역에서 교단 COCIN(Church of Christ in Nations) 지역 의장을 맡고 있는 에제키엘 다초모(Ezekiel Dachomo) 목사는 최근 자신이 암살 표적이 됐다고 밝히며 공포 속에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다초모 목사는 10월 24일(이하 현지시각) 조스(Jos)에서 현지 기자들과 만나 “내 생명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공격을 경계하고 있다. 이전에도 공격을 당했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숨진 교회 성도들의 시신이 매장된 집단 매장지에 서서 활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정부의 학살 부인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영상에서 다초모 목사는 최소 12명 이상의 희생자 시신을 가리키며 “정부는 기독교인 학살이 없다고 말하지만, 오늘만 해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정부와 유엔, 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 빌 클린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도움을 호소하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에 개입했듯이 나이지리아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초목 폭사는 영상 공개 이후 극단주의 무장세력뿐 아니라 나이지리아 군부 관계자들로부터도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이 공격 징후를 보고만 고도 대응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군부에서 나를 선택자라고 몰아붙였다"고 했다. 다초목 폭사는 최근 군의 한 관계자가 교회를 직접 찾아와 신변 보호를 약속했다고 전했지만, 지난 7일에는 극단주의 세력이 "7일 이내에 목숨을 끊겠다"고 협박했다는 미확인 보고도 나온 상태다.

그는 또 "만약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되더라도 어떠한 몸값도 지불하지 말라"는 약속이 기독교 해방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순교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기독교 지도자들 “보르노-플래토 지역, 사실상 학살 진행 중”

CDI는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Borno)주의 교계 지도자들이 최근 공개 성명을 통해 극단 이슬람 조직(ISWAP·보코하람)에 의한 대규모 가톨릭인 박해 사례를 상세히 공개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구오자(Gwoza) 지역은 과거 176개 이상의 교회 건물이 존재했지만, 현재 148곳이 불타 폐허가 되었고 가톨릭인 수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은 채 국내외 난민

민 캠프를 떠돌고 있다.

구오자 기독교 공동체협회(GCCA)는 최근 발표한 '숨겨진 집단학살(Unspoken Genocide)' 보고서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예배당 건축 허가를 일절 받지 못했지만 이슬람 사원은 자유롭게 건립되고 있다며 구조적 차별을 고발했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에서도 기독교인은 사실상 배제됐으며, 정부 학교에서는 기독교 종교교육 과목 자체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수천 채의 무슬림 거주는 정부 지원으로 재건되었지만, 기독교인 주택은 거의 복구되지 않았다. 수천 채 중 기독교인에게 돌아간 집은 단 3곳뿐”이라며 심각한 불평등을 지적했다.

◆“폭력, 이미 최악 수준… 나이지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스(Open Doors)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2025년 월드워치리스트(WWL)에서도 '기독교인으로 살기 가장 위험한 국가' 7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신앙으로 살해된 기독교인 4,476명 중 3,100명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했다고 기록했다.

또한 중부 벨트 지역에서는 극단주의 풀라니(Fulani) 무장세력의 기동과 농촌 공격이 계속되고 있으며, 북부 각지에서 도 보코하람(ISWAP 등) 지하디스트 조직의 공격, 납치, 섹스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알카에다 연계 조직 '라쿠리야(Lakuruya)'까지 등장해 서북부 지역 불만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영국 의회 산하 '국제 종교자유 APPG'

도 이미 2020년 보고서에서 일부 풀라니 무장세력이 지하디스트 조직과 동일한 전략과 이념을 공유하며 기독교 상징물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학살… 국제사  
회 개입 필요”

나이지리아 교계 지도자들은 반복되는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사회를 향한 폭력과 차별이 구조적으로 이어

Page 10 of 10

Downloaded from <http://ajph.org/> at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on June 11, 2015

## B E E

일상 속

[illegible]

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주목과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보르노 지역 교회는 “교  
회는 전혀 공격을 가한 적이 없으며, 공격  
하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살해  
한 적도 없다”며 “이는 명백히 일방적이고  
조직적인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다초모 목사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기독교인 보호와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독교인 학살 현장과 위기 상황을 기록하려는 그의 움직임은 오히려 극단한 세력의 표적을 키우고 있지만, 그는 "미래 세대가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증언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연 기자

A man in a military uniform is playing a flute on a stage. In the background, a large mural depicts a man in a military uniform, and a banner reads "STAND FIRM! LAST COMING SOW!".

나이지리아 군 대표가 에제키엘 다초모 목사의 교회를 찾아 보호를 약속했다.  
©Screenshot from YouTube

# B E Y O N D ENTERTAINMENT E L E V A T I N G E X C I T E M E N T

일상 속 색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WALKERHILL  
HOTELS & RESORTS


워커힐의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

#### MEET NEW ART @ VISTA

비스타 워커힐의 야외 가든, SKYARD에서  
최고의 뷰와 함께 세계적인 아티스트  
JAYSON ATIENZA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 ART PICNIC

워커힐의 아트 프로젝트 1탄,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아트 피크닉을  
즐겨 보세요.

KakaoTalk  플러스친구

카카오 플러스 친구 WALKERHILL

워커힐의 카카오 플러스 친구가 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벤트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 보세요.

www.walkerhill.com 문의 1670-0005



# 위 브릿지 1기 감사예배, 외로운 개척교회들 사이에 다리를 놓다

남가주 넘어 타주로 사역 확장 비전 나뉨

기록일보가 지난 11월 11일 제1기 위 브릿지 감사예배를 드리며 지난 3년의 사역을 마무리했다.

또한, 남가주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위 브릿지 사역이 새로운 2기 사역을 시작하며, 남가주를 넘어 텍사스 및 타주로 사역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제 1기 위 브릿지를 통해, 총 50개 남가주 교회가 3년간 후원을 받았다. 또, BTS Solar Design, Crober INC., EHP Solutions, LA사랑의교회, LA씨티교회를 비롯해 총 50개의 단체와 교회가 위브릿지로 선정된 교회들을 도왔다.

참여 교회들은 “물집보다 더 큰 선물은 ‘너희가 혼자 아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작은 개척교회였지만, 이 교회를 기억하고 계심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팬데믹이 종식 단계로 접어들던 2022년 9월, 팬데믹으로 인한 여파는 재정적 기반이 자리잡혀 있던 대형교회들보다, 재정적 기반이 약한 소형교회들에 더 깊은 타격을 줬다. 지난 3년의 기간,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손을 내밀었던 위 브릿지의 손길은, 남가주 여러 개척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순종하기 위해 목목히 개척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같은 처지의 동역자들과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던 그 따뜻했던 날들의 기억을 남기며 마무리 될 시점이 다가왔다.

제1기 위 브릿지 감사예배는 11일 오전 10시 총현선교회(국윤권 목사) EM 예배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기록일보가 주최하고 크리스천 다음세대 연구소(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가 주관했다.

예배는 강태광 목사(WorldShare USA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원하트미니스트리의 개회찬양과 김용근 목사(크레센타벨리교회)의 대표기도로 시작되었다. 위 브릿지 교회 연합 찬양에 이어,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원로)는 “동역”(시편 133:1-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시편 133편을 중심으로, 이 사역을 통해 회복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배’라고 말했다.

“시편 133편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불려진 찬양이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곧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온 백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기쁨이었다.”

그는 “우리는 종종 ‘주님을 위해’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물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것 같다. 주님께 나를 드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 그런데 다윗은 법궤를 옮기게 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기뻐한다. 이 말씀을 통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 회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저는 원래 음악을 했다.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설교 후 집에 오면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아직 가수야. 박수 받는 비결을 알잖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사람의 주목을 받으려는 거야.’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찔렀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연예인적 습관이 제 안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한동안 그 부분을 두고 많이 씨름했다.”

그런데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소’를 하는지 물었다.

“내가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가 정말 순수하게 100%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가? 설교를 할 때도 나도 모르게 인기를 얻으려 하는 나 자신을 본다. 한 시간 예배도 필요하다. 25분 설교도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때는 1시간도 설교하고, 2시간 예배도 있어야 한다. 왜 예배가 인스턴트화 되었나? 왜 하나님을 가뉘는가가? 내가 다 계획하고 예수님을 거기에 가뉘놓고, 말씀을 가뉘놓고, 기도를 가뉘놓고, 찬양을 가뉘놓고, 어떻게 세상 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런데서, 위브릿지의 사역 또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함을 강조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 된 공동체임을 상기시켰다.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처럼, 연합 속에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흘러가며, 그 향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의 증거가 된다고 했다.

또한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록일보가 지난 11월 11일(화) 제1기 위 브릿지 감사예배를 드리며 지난 3년의 사역을 마무리했다. ©기록일보

은혜가 공동체를 적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전했다. “형제가 동거하며 서로 붙잡아주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교회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잠언 4장 9~12절을 인용하며, “함께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며, 위브릿지의 동역자들이 이 말씀처럼 연합의 줄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내 사랑 하는 형제들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 15:58)를 위브릿지 교회 목회자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로 전하며, 9년 전 암투병을 겪으며 자신의 목회의 자세가 달라졌던 사건을 나누었다.

“9년 전, 암에 걸려 사형선고를 받았다.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그때 나는 살려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1년 반을 백 년처럼 살 거야.’ 그렇게 다짐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내가 했던 묵화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일들이 너무 많았다. 비열했고, 교만했고, 게을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려 했던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떠올랐다. 그래서 다짐했다. ‘나는 1년 반을 백년처럼 살 거야. 오늘이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살 거야.’”

그는 “오늘이 마지막이자 처음이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말했다. 1부 예배는 최화광 목사(미주한인문화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되었다.

◆2부 위 브릿지 은혜 나눔  
2부 순서로 위 브릿지 사역 은혜 나눔

이 진행됐다.

강태광 목사와 김금자 전도사(기록일보)의 사회로, 김영일 목사(더섬가는교회), 정용암 목사(랜초한인교회), 박수정 사모(LA ONE CHURCH), 김수정 사모(LA 성암교회)가 은혜를 나누었고,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 폴 김 목사(BTS SOLAR 대표),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 국윤권 목사(총현선교회)가 격려사를, 이안규 목사(기록일보 대표)가 감사인사를 나누었다.

김영일 목사(더 섬가는 교회)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며, 후원 교회의 섬김과 도움을 통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멕시코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다고 간증했다.

정용암 목사(테메큘라 랜초한인교회)는 “개교회 중심적 배타주의를 넘어, 하나 됨을 실현하는 사역이었다”며 “이 사역이 한국과 세계로 확장되어 작은 교회들을 세우는 운동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LA에서 우범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컴튼에서 그곳 가정들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LA ONE CHURCH 박수정 사모는 “2022년 초, 바닷가에서 기도하던 중 ‘미주 기록일보를 검색하라는 감동이 있었다. 그렇게 위브릿지 사역을 알게 되었고, 마감된 컨퍼런스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청했는데 받아주셨다”고 말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제 이름이 적힌 태이블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구나’라는 마음에 눈물이 났다. 이제는 12인승 버스를 선물받아 아이들을 가득 태우고 교회로 향한다. 위탁아동 두 명이

함께하게 되었고, 술병을 치우지 않아도 되는 새 예배처도 주셨다. 위브릿지는 하나님께서 외로운 개척교회들 사이에 놓으신 다리이다. 그 다리 위로 기도하고 사랑, 희망이 오간다. 캄캄한 밤 망망대해에 조명탄 하나를 쏘아 올렸던 그 자리에서, 그 빛을 보고 달려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간증했다.

LA 한인타운에서 묵화하고 있는 김수정 사모(LA성암교회, Holy Rock Church)는 2020년 11월 팬데믹으로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을 때, 교회를 개척했다고 나눴다.

그는 비바람이 부는 가운데, 집 앞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집 주인에 의해 천막 철거 명령을 받고 예배 처소를 찾아 해맨 사건 등, 팬데믹 기간 중 교회를 개척하며 겪은 어려움들을 간증해, 위브릿지 사역의 의미를 돌아보게 했다. “교회를 개척하며 감당해야 될 무게도 너무 컸지만 주님의 그 작은 위로가 큰 힘이 되었다.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 3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이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위 브릿지를 통한 그런 위로의 시간들이었다”

송정명 목사는, 팬데믹으로 수백 개의 교회가 문을 닫했을 때, 위 브릿지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폴 김 목사는 ‘교회를 도우라’는 음성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채워주셨는지 간증했다.

“하루 3천 명씩 죽어 나갈 때 저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살아 남고 나서도

길을 수 있게 되기까지 4, 5개월이 걸렸다. 걸어서 LA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인규 목사님이 저에게 위 브릿지를 설명하셨다. 나 혼자 설 힘도 없는데.. 백만 불이 넘는 병원비로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재정이 다 사라졌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저보고 오하려 도우라고 하셨다. 그래서 시작했다.”

“시작할 때는 제가 한 교회를 섬기기로 했다. 그런데 두 교회로 늘어났고, 또 2년이 지나서 세 교회가 됐다. 또 한 교회가 반박에 후원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또 반을 부담했다. 그래서 교회 3개 반을 섬겼다. 어찌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제가 시작할 때의 매출액의 3.4배로 늘려 주셨다. 이 불경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는 코비드 당시, 한국 교회의 교회들이 마주 이민교회를 돕기 위해 수천만 불의 헌금을 보내 주셨던 사실을 전하며, “이민교회가 어떻게 섬김의 방향을 회복할지 고민하던 중, 기록일보를 통해 동행의 길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윤권 목사는, 장애인 사역을 하신 아버지를 늘 자신의 목회의 자리에서 떠올리다며 “규모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좋은 목회자의 자세”라며, 이 사역을 통해 남가주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이안규 목사는, 눈길에 쓰러진 순례자를 등에 업고 걸어감으로써 자신도 동사하지 않고 그 순례자도 살릴 수 있었던 사투 켄다 싱(Sadhu Sundar Singh)의 일화를 언급하며, “나조차 살기 어려운 때이지만, 남을 살리려는 사람이 결국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이며, We Bridge 사역의 정신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역을 남가주를 넘어 미주로,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향한 연합의 다리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는 단체 사진 촬영과 강문수 목사(OC 목사회 회장)의 식사기도 후 점심식사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번 행사는 위브릿지 교회들과, 후원 교회들을 비롯해 총현선교회, 귀생당, 서울 메디칼 그룹, BTS 솔라, 채 안 주지사 후보 후원회, 월드쉐어 USA, 한국해민 병원, VITAPIA,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센터 메디컬 그룹 등이 후원했다. 위브릿지 사역에 보다 많은 관심과 후원을 원하는 분들은 213-434-1170이나 chdailya@gmail.com 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디 한 기자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수수료는 3년간 0원 ('25년 한시)

국가지원금은 3년간 20%

최저임금의 130%('24년 월평균 273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각각 10%씩 지원

안정적 수익률 14.67% 달성

2024년 12월 기준 누적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홍보모델 김성주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검색하세요!







# 로잔 “AI 시대 선교” 논의… “기술, 도구일 뿐 복음 주체는 인간”

로잔운동(Lausanne Movement)이 인공지능(AI)이 기독교 선교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로잔운동은 새로 출범한 연구 부서 ‘라이트(LIGHT)’를 통해 교회와 일상 속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AI 기술의 기회와 도전, 그리고 그에 따른 신학적·윤리적 책임을 탐구하고 있다.

연구 주제는 커뮤니케이션과 학습, 묵회, 신학, 돌봄 사역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라이트의 최근 보고서는 “AI 자체는 구원자도 위협도 아니다. 그것의 가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분별하고, 관리하며,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로잔운동은 AI가 세계 사회 전반에 깊이 스며드는 현 시점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복음 선교의 사명을 왜곡하지 않

으면서 오히려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는 AI에 대한 논의가 단순히 윤리의 문제를 넘어, 목회자·선교사·신학자들에게는 “복음 사역의 본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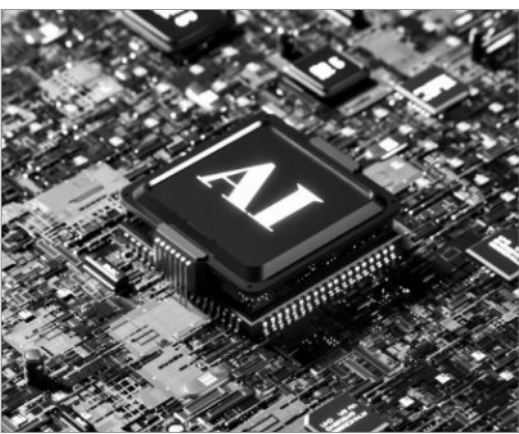
현재 AI는 성경 번역, 커뮤니케이션 자동화, 복음 전파와 선교 전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남용될 경우 인간적 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라이트 보고서는 “순진한 낙관주의도, 마비된 두려움도 경계해야 한다”며 “신학적 통찰과 윤리적 인식으로 AI를 다뤄야 한다”고 권면했다. 또한 “AI가 인간 관계를 대체하지 않고 강화하도록, 교회가 디지털 시대에 투명성과 공정성, 정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와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로잔 연구진은 △대위명령(Commission Alignment)과의 일치, △인간적·영적 관계의 강화(Relational Alignment),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 약자 보호(Utility and Equity Alignment), △투명성과 도덕적 책임(Moral Alignment) 등 네 가지 윤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AI는 하나님과의 교제나 사람 간의 관계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진정한 인간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도덕적 책임을 가진 존재로서, 결코 기계에 도덕적 주체성을 부여할 수 없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책임은 결국 인간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선포적 복음 전도’ 영역에서 AI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AI는 새로운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거나, 문화적으로 적합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지만, 로잔운동은 “디지털 도구가 성육신적 복음 증언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Igor Omilaeu/ Unsplash

보고서는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성경의 명령은 기술 혁신을 초월하며, 어떤 매체를 사용하든 충실한 선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AI는 복음 전도자의 소통을 돕고, 제한 지역의 선교사를 보호하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청중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인간의 육성은 결코 대체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보고서는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현존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며 “AI 시대에도 성육신적 인간 증언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은 자와 외로운 자에게 실제적으로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강조했다.

라이트 보고서는 “교회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기술 혁명을 맞이해 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분별과 용기, 기도로 대응해야 한다”며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AI는 하나님의 설계의 효율성과, 하나님의 방법의 총본성을 동시에 도전한다”며 “AI가 보조할 수는 있지만, 복음을 선포하고 대위명령을 완수하는 영으로 충만한 인간 증언자를 결코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이미경 기자

## 美 자선지수… 와이오밍 ‘가장 나누는 주’, 가장 인색한 주는?

미국의 각 주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얼마나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금융 정보 플랫폼 ‘월렛허브’(WalletHub)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50개 주를 ‘가장 자선적인 주’부터 ‘가장 덜 자선적인 주’까지 순위를 매겼다. 이번 조사는 ▲자원봉사 및 서비스 참여도 ▲자선 기부 규모 등 두 가지 핵심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됐다.

자원봉사 및 서비스 부문에서는 자원봉사 참여율, 1인당 봉사시간, 이웃을 돕는 비율, 어려운 이웃에게 돈을 빌려줄 의향, 음식 및 의료 모금 활동 참여율, 모금 행사 참여율, 일반적 노동 봉사 참여율 등이 반영됐다.

자선 기부 부문에서는 소득 대비 기부 비율, 시간·금전 기부율, 인구 대비 공공 자선단체 수, 상위 평가 자선단체 비율, 자선 관련 검색량, ‘피딩 아메리카’(Feeding America) 푸드뱅크 수, 노숙인 보호 비율 등이 평가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와이오밍(Wyoming) 주가 종합 점수 69.49로 미국에서 가장 자선적인 주로 꼽혔다. 이어 유타(Utah), 메릴랜드(Maryland), 미네소타(Minnesota), 버지니아(Virginia), 콜로라도(Colorado), 델라웨어(Delaware), 메인(Maine),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오리건(Oregon)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반면, 뉴멕시코(New Mexico) 주는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에서 최하위를 기록해 가장 덜 자선적인 주로 평가됐다. 그 뒤를 네바다(Nevada), 미시시피(Mississippi), 앨라배마(Alabama), 로드아일랜드



©pixabay

(Rhode Island), 루이지애나(Louisiana),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 애리조나(Arizona), 플로리다(Florida), 미시간(Michigan)이 이었다.

와이오밍 주민들은 연평균 29시간을 자원봉사에 할애하며, 소득의 약 4%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 전체 노숙인의 82%가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타주는 인구의 47%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46시간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주민의 68% 이상이 이웃을 돕는다고 답했고, 평균 소득의 3.5%를 자선기금으로 기부했다.

메릴랜드에서는 납세자의 16%가 자선단체에 금전 기부를 했으며, 주 전체 노숙인의 83%가 보호시설을 이용 중이다.

자원봉사 및 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자선적인 주는 유타였으며, 뒤를 와이오밍, 아이다호(Idaho), 몬테나(Montana), 미네소타, 메인, 오리건, 델라웨어, 알래스카(Alaska), 뉴햄프셔(New Hampshire)가 이었다. 반면 자선 기부 부문에서는 버지니아가 1위를 차지했고, 뉴욕(New York), 메릴랜드,

조지아(Georgia), 캘리포니아(California), 와이오밍, 아칸소(Arkansas), 콜로라도,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일리노이(Illinois)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유타는 자원봉사 참여율에서도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버몬트(Vermont), 미네소타, 네브래스카(Nebraska), 캔자스(Kansas)가 이었다. 반대로 자원봉사율이 가장 낮은 주는 로드아일랜드였으며, 네바다, 앨라배마, 뉴멕시코, 플로리다가 뒤를 이었다.

또한 와이오밍과 유타 주민들은 소득 대비 기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아칸소·조지아·뉴욕이 그 뒤를 따랐다. 반면 웨스트버지니아는 가장 낮은 기부율을 보였다.

노스다코타(North Dakota)는 인구 대비 식품 모금 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인디애나(Indiana), 오하이오(Ohio),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 아칸소가 뒤를 이었다. 반면 로드아일랜드와 뉴멕시코, 애리조나, 알래스카, 콜로라도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델라웨어, 몬테나, 버몬트, 와이오밍은 인구 대비 자선단체 수에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유타, 애리조나, 미시시피, 뉴멕시코, 켄터키(Kentucky)는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는 미국에서 ‘기빙 튜즈데이’(Giving Tuesday) 기부 장려의 날을 약 3주 앞두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한 달 반가량 앞둔 시점에 발표됐다. 월렛허브는 “이번 연구가 미국인들에게 연말 선물과 함께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 美 포드호 항모전단, 카리브해 전개… 베네수엘라에 최고 압박

미 남부사령부 “마약 테러 대응 작전 돌입” ‘서던 스피어’ 작전 일한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해군의 제1함대 포드 항공모함 전단이 카리브해에 진입했다. 이번 배치에 따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16일(현지 시간) 미 남부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포드호가 이끄는 항모전단이 16일 애나가다 항로를 통과해 카리브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남부사령부는 “이 해상 작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국토 방어를 위한 조국가 범죄조직 해체 및 마약 테러 대응 명령을 지원하라고 명령하면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개는 마약 소탕을 목표로 하는 ‘서던 스피어’ 작전의 일환으로, 항모는 카리브해에 배치된 갑상상륙 준비단 및 이에 탑승한 해병 원정대 등과 합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군은 카리브해 지역에 배치돼 미 남부사령부 임무, 국방부 지시 작전, 그리고 불법 마약 밀매 차단 및 국토 방어라는 대통령의 우선 과제를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포드 항모는 이지스 구축함 베인브리지함(DDG-96), 마한함(DDG-72), 윈스턴 처칠함

(DDG-81)과 함께 카리브해 북부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했으며, 최근 남부사령부 작전구역으로 진입했다.

앨빈 홀시 미 남부사령부 사령관은 “우리는 단호한 의지와 정밀한 전력 운용을 통해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려는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포드 항모전단의 투입은 서반구 안보와 미국 본토 안전을 위한 중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포드호는 2017년 취역한 미국 해군의 최신 함모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항모로, 5000명 이상의 승조원이 탑승하며 F/A-18 수퍼호넷, E-2D 호크 아이 조기경보기 등 최대 75기의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다.

핵추진 항모 1척 중 하나인 포드호의 급파는 통상 수년 전부터 계획되는 항모 배치 일정과 비교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미국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이를 겨냥해 군사 작전을 확대해왔다.

미군은 지난 9월 이후 카리브해 및 동태평양 해역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상대로 최소 20차례 공습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80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 배치를 “정권 전복을 위한 시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에 맞서 대규모 군 동원령을 내리며, 일대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문예성 기자





**Maeil**  
Maeil Health Nutrition

# AUSTRALIFE®

**맛있는 호주산 산양유 단백질,  
드셔보시면 프리미엄은 확실히 다릅니다.**

**1** **속편한 호주산 산양유**  
**국내 최다\* 함유**



**2** **한끼 영양 설계에**  
**식이섬유, 오메가3까지**



AUSTRALIFE®



◀ 보러가기



**무료 제품 상담 및 할인 금액 주문 가능!**

**☎ 전화 주문 가능 (무료상담) | 080-860-1539 (내선 2번)**

\*국내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중, 2024년 7월 기준







# 전국 학교 돌며 청소년에게 희망 전한 ‘2025 함께치얼업’ 캠페인 성료



광주중학교에서 한화생명과 함께한 '함께치얼업' 캠페인 현장의 모습. ©생명의전화

## 생명의전화·한화생명, 6개월간 청소년 마음 건강 응원하며 생명존중 메시지 확산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가 주관하고 한화생명·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후원한 '2025 찾아가는 청소년 응원 캠페인 함께치얼업'이 전국 학교를 돌며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지지를 전하는 활동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캠페인은 상반기에 진행된 '청소년을 살리는 걸음 함께고워크'를 통해 모인 기부금으로 운영됐으며, 참여자들의 선행이 실제 청소년 지원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전국에서 총 341건의 사연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광주중학교, 화계중학교, 문산수영고등학교, 춘천중학교, 기전여자고등학교 등 5개 학교가 선정돼 생명존중 프로그램이 직접 진행됐다. 생명의전화 관계자들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임직원들은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괜찮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네의 하루를 응원해”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며 위로와 용기를 건넸다. 선정된 학교 외 7개 학교에도 선물이 전달되며 전국적으로 총 5천여 명의 청소년

이 응원과 격려를 받았다. 학생들에게는 응원 카드와 기념품이 전달됐고, 학교 현장에는 도전존, 응원존, 포토존, 리워드존, 생명이네 약국 등 참여형 부스가 마련돼 학생들이 스스로를 격려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활동에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그중에는 실제 학부모들도 포함돼 있어 학생들에게 전한 메시지에 더욱 진정성이 실렸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힘을 얻었다”고 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현장의 공감과 온기가 캠페인의 취지를 더욱 빛나게 했다. '함께치얼업' 캠페인은 6월부터 11월까지

지 약 6개월 동안 전국의 학교를 순회하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해 왔다. 마지막 일정은 10월 24일 기전여자고등학교 방문으로 마무리됐으며, 참가자와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생명의전화와 한화생명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 회복과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겪는 정서적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캠페인이 지속적인 지원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더해지고 있다. 최승연 기자

#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 돕는 선행의 발걸음, 월드휴먼브리지 자선골프대회 성료

## 더헤븐CC와 함께한 제11회 자선대회, 취약계층 가정 의료비 지원에 온정 모아

국제구호개발NGO 월드휴먼브리지(대표 김병삼)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들과 그 가정을 돕기 위한 연례 자선 활동을 올해도 이어갔다. 월드휴먼브리지와 더헤븐CC가 공동 주최한 '제11회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 지원을 위한 자선골프대회'가 최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더헤븐CC에서 열리며 따뜻한 나눔의 장을 만들었다. 이번 행사에는 이레마티리얼스

(손정완 대표)와 에이디씨엔에스(정성환 대표)가 후원사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대회 현장에는 월드휴먼브리지 김병삼 대표를 비롯해 청주시부 안광복 대표, 인천지부 박장혁 대표, 수원지부 박성영 대표 등 총 120여 명의 후원자가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합계운 시간을 건디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며 따뜻한 연대의 시간을 보냈다.

한제 우리나라의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은 1,338개로 확대됐지만, 많은 가정은 여전히 막대한 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복합적인 증상과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비급여 항목이 크게 늘어나며, 장기 치료가 필수적인 만큼 경제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 이러한 치료 과정은 환아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심각한 심리적정서적 고통을 불러올 수 있다. 월드휴먼브리지는 이 같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해 지난 10

여 년간 약 80명의 환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김병삼 대표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선골프대회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전액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의 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월드휴먼브리지와 더헤븐CC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환아와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

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하고 있다. 월드휴먼브리지는 전국 18개 지부가 연합해 국내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비롯해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위한 실질적인 나눔을 이어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최승연 기자



후원금 전달식 현장의 모습. ©월드휴먼브리지

# 이준호 팬모임 ‘알럽준호’, 월드비전에 쌀 350kg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 확산

## 드라마 ‘태풍상사’ 제작발표회 축하 쌀화환, 국내 취약 아동 위한 ‘사랑의도시락’으로 전달돼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의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가수 겸 배우 이준호를 응원하는 팬모임 ‘알럽준호’가 국내 식생활 취약 아동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팬모임은 tvN 드라마 ‘태풍상사’ 제작발표회를 축하하며 준비한 쌀화환 350kg을 월드비전에 기부했고, 이 쌀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시락 형태로 전달될 예정이다. 팬들의 축하 마음이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실질적인 식사 지원으로 이어지며 의미를 더했다. 이번 기부는 팬모임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준호가 월드비전 홍보대사로써 꾸준히 이어온 선한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팬들의 나눔 활동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전달된 쌀 350kg은 서울서부지역본부에 200kg, 광주전남사업본부에 150kg으로

나누어 배분되며, 월드비전의 ‘사랑의도시락’ 사업을 통해 국내 식생활 취약 아동들에게 건강한 한 끼로 전달된다. 팬모임 ‘알럽준호’는 “이준호가 새롭게 시작한 오쓰리컬렉티브(O3collective)의 첫 제작발표회를 함께 축하할 수 있어 뜻 깊었다”며 “홍보대사로써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는 그에게 감동해 후원에 동참했고, 앞으로도 이준호와 오쓰리컬렉티브의 따뜻한 행보를 계속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이준호 배우와 드라마 ‘태풍상사’를 응원하는 팬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달된다”며 “이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의 하루를 지탱하는 희망의 끈이 될 수 있도록 월드비전이 책임감 있게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월드비전 서울서부사업본부 복지사업팀 홍예진 간사(왼쪽·오른쪽, 동명인)가 쌀을 받은 모습. ©월드비전

이준호는 지난 2011년 아동 후원을 시작으로 월드비전과 인연을 맺었고, 2012년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후 꾸준히 국내외 아동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에 참여해 왔다. 그는 ‘글로벌 6K 포 워터’ 캠페인, 태국월드비전 ‘하어로 캠페인’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취약 아동 지원에 앞장서 왔다. 이번 팬모임의 기부는 그의 지속적인 나눔이 사회적 참여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최승연 기자

# 성북구 마약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간담회 열려

## 고려대 답곡, 소형준 구의원과 두 번째 만나

(사)대학을위한마약중독예방재활센터(이사장 두상달 장로, 이하 답곡)의 지부인 고려대 답곡 대표단이 최근 성북구의회에서 소형준 구의원과 성북구 마약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답곡 측은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2일 1차 간담회 이후 이어진 후속 논의로, 지역사회와 청년 세대가 함께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북구 내 청년·청소년 대상 마약예방 교육 프로그램 실행 △지역 학교·복지기관 연계 프로그램 추진 △대학생 주도 캠페인·문화 활동 협력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성북구 소형준 구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고려대 답곡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답곡

소형준 의원은 “마약중독은 더 이상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마약류 중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성북구가 청년들과 함께하는 마약예방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답곡 정하늘(화학과, 21학번) 학생부 대표는 “의회와 대학생이 공식적으로 연결된 만큼, 보여주기식 활동이 아니라 지역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청년 주도형 실행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김진영 기자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 ONE OF NOT MANY. GENÈVE



# 전쟁·탄압의 잔해 속에서도 동유럽에서 다시 일어나는 복음의 희망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제니스 앨런(사진)의 기고글인 '포스트 공산주의 유럽에서의 복음(The Gospel in post-Communist Europe)'을 12일(현지시각) 게재했다.

2008년부터 International Cooperating Ministries(ICM)의 CEO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섬겨온 제니스 앨런은 1986년부터 이사회에서 활동해 왔다. 2020년에는 CEO 역할에 더해 ICM의 회장(President) 직책까지 맡아 책임을 확대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세계는 다시 한 번 우크라이나의 고통과 회복력을 바라보고 있다. 전쟁은 수많은 삶과 도시를 파괴했지만, 세계 지도자들의 평화 요청 뒤편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 폐허 속에서도, 동유럽의 교회는 갈가리 찢긴 갈등과 억압의 잔해 위에서 복음의 희망이 다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련의 흥망은 동유럽 전역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1936년부터 1938년까지 스탈



린의 '대숙청' 기간 동안, 모든 신앙의 신자들이 처형, 투옥, 극심한 폭력, 그리고 굴라그(Gulag) 수용소로의 추방을 겪었다. 그 이후 수십 년 동안도 기독교인은 차별을 당했고, 감시와 괴롭힘을 받고, 교육이나 일자리를 거부당했으며, 공적으로 모이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이 새로운 종교처럼 요구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은 그림자 속에서 몰래 모여 소수의 신자들에게 생명줄이 되었다. 다른 이들은 이웃이나 비밀경찰의 눈을 피해 은밀한 조직을 만들며 교회를 지켜냈다.

세대에 걸친 종교 탄압은 동유럽 여러 나라들의 문화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정부는 국가적 무신론을 강제했고 조직 종교의 흔적을 지우려 했다. 수백만 명에게, 그 시기의 상처와 기억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다.

철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 이론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까지 동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종교적 정체성은 급격히 약화되어 있었다. 한때 '지구에서 가장 무신론적인 곳'이라 불리던 동독은 지금도 동독 지역 인구의

60%가 "하나님을 믿어본 적도 없다"고 말한다. 바르샤바 조약 가구를 구성했던 21개 국가는 새로운 정치문화 환경으로 들어섰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전직 공산국가들은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에서 흔들렸고, 신앙이 자리할 공적 공간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하 교회들은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때 믿음을 숨기던 공동체들이 공개적으로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동유럽 일부 지역의 기독교 성장은 서구보다 앞서기 시작했다. 더 많은 신자들이 담대하게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3년 동안 600개 이상의 종교 시설이 파괴되었다. 벨라루스에서는 여전히 종교 집회에 대한 통제가 심각하다. 가족들이 흩어지고, 지도자들이 징집되고, 공동체가 뿔뿔히 흩어졌지만, 건강한 지역 교회를 통한 '희망의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

43세의 우크라이나 난민 로만 야사멘토프는 집도 생계도 없고 곧 징집될 상황에서 지역 교회에서 피난처를 얻었다. 그곳에서 신자들은 그의 이

야기를 듣고, 기도해주고, 전선으로 나갈 준비를 함께 했다. 부상을 입은 후에도 그는 전쟁 한가운데서 자신을 지탱해준 것은 "그 기도들"이라고 고백한다. 그의 교회는 또한 지역 주민들이 모여 식사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아가페 잔치'를 열고 있다. 혼란 속에서도 더 큰 소망을 향해 가는 작은 공동체의 증언이다.

또 다른 우크라이나 교회는 처음에는 군인 가족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교회 밖 여성들을 섬기는 'Called To Inspire'라는 여성 사역으로 이끄셨다. 이 사역은 전쟁의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진 여성들을 만나 치유와 돌봄을 전하고 있다. 가장 어두운 날에도, 지역 교회는 혼란의 시대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조용한 저항이다.

벨라루스와 타지키스탄처럼 여전히 차별과 배제가 심한 지역에서도, 각 교회는 그 지역의 문화 속에서 신앙이 뿌리내릴 수 있는 전략적 자이다. 이는 서구 선교사가 가져온 교회가 아니라, 현지인들이 직접 세우고 이끈 토착 교회들이다. ICM은 2026년까지 이 지역에 8개의 교회를 추가 건

축하도록 돕기를 희망한다. 한때 신앙이 억눌렸던 땅에서 교회는 다시 일어서고 있고, 사람들과 공동체는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의 훈련센터와 제자도 도구 개발도 장기적으로 사역을 지속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비록 휴전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치는 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영적 부흥이 가져오는 근본적 변화는 절대로 대신할 수 없다. 그 역할은 오직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다. 동유럽의 역사는 수십 년의 탄압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에서도, 교회가 여전히 일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멀리서 지켜보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은 분명하다. 이 논의는 단순히 정치적 위기의 종결이 아니라, 동유럽 모든 사람의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안에 건강한 지역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지원할 기회라는 것이다. 동유럽의 교회는 약하지 않다. 믿음은 꺼지지 않았다. 소망은 어느 휴전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다.

최승연 기자

## “교회 예산이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말해준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은 폴 스와미다스 박사(사진)의 기고글인 '교회가 선교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상기시키다'(Reminding churches to invest in their

missional purpose)를 13일(현지시각) 게재했다. 스와미다스 박사는 미국 앨라배마주 오번에 위치한 오번 대학교 하버트 경영대학 명예교수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오래전, 한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매우 효과적으로 소식을 전파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을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불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노도다 하니라” (요한복음 12:17-19). 무작위의 무리는 오늘날 스스로 예수님의 잘 알려진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선교적 교회들에게 매우 높은 기준을 세워놓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9-20)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증언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PEW 리서치센터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수많은 미국인들이 기독교를 떠나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혹은 '특정 종교 없음'이라고 정체성을 밝히는 미국 성인의 증가한 무리로 옮겨갔다. 최근 National Review의 기사 “Against the New Paganism”에서 잭 버틀러는 이렇게 주장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독교는 공적 영역과 대중문화에서 후퇴했고, 동시에 밀려났다. 이 나라에서 한때 강력했던 기독교의 기둥들은 쇠퇴하고 있다.”

그의 의견은 옳다. 또한, 미국 남침례회 국제선교위원회(IMB, 2023)에 따르면 “오늘날 전 세계의 59%가 미전도 지역—즉 46억 명에게 예수께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아직도 이루어야 할 선교 사역이 매우 많다는 뜻이다. 이 모든 사실은 선교 지향적 교회들이 어딘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연 무엇이 발목을 잡고 있는가?

### ◆선교와 교회 예산의 역할

지난 50년 동안 미국 6개 주, 7개 복음주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필자는 교회들이 주장하는 '선교적 강조'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몇 년 전, 한 담임목사에게 물었다. “교회 예산의 몇 퍼센트가 선교로 가나요?” 그는 “약 11% 정도입니다.”라고 답했다.

필자는 다시 물었다. “그 예산의 50%를 선교에 사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의 반응은 매우 격앙되어 있었다. (즉,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도 선교 예산이 그 수준에 이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 운영위원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선교 예산 비중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의 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심이었다. 2023년, 이 교회의 선교 헌금과 선교 관련 지출은 전체 예산의 25%를 넘었다.

작은 교회들은 재정이 너무 적어서 예산의 절반을 선교에 쓰는 것이 비현실적일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미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예산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이다.

### ◆교회 예산에 대한 불편한 진실

매튜 브래노(Matthew Branaugh)는 그의 글 “How Churches Spend Their Money”에서 평균적인 교회는 전체 예산의 약 10%만을 선교(국내+해외)에 사용한다고 말한다. 또한 트로이 깁슨(Troy Gibson) 교수는 그의 비평적 블로그에서 진 베이스(Gene Veith)의 말을 인용한다. “미국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1달러가 헌금되면, 해외 선교로 가는 금액은 평균 단 2센트(2%)이다. 반면,

한교 전주의 안디옥장로교회에서는 1달러 중 70센트(70%)가 선교에 사용된다.”

필자는 국제 선교에 깊이 관여한 한 친구와 상의했다. 그는 선교 중심 교회에서 오랫동안 선교 디렉터로 일한 사람이다. 그는 “우리 교회는 전체 예산의 약 52%를 선교로 사용했습니다.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고, 저는 그 사역에 참여해 큰 축복을 받았습니.”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필자는 교회가 예산의 절반을 선교에 사용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SBC Voices의 맷 스보다(Matt Svoboda)도 교회 예산의 50%를 선교에 사용하는 제안을 한 바 있다.

### ◆교회 예산에서 '사역'과 '선교'는 다르다

어딘가에서 읽은 문장이 떠오른다. “모든 선교는 사역이지만, 모든 사역이 선교는 아니다.” 따라서 교회 예산이 수많은 사역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세계를 향한 증인의 역할, 즉 선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 선교의 목적 중 하나는 모든 민족이 사도행전 2장 11절의 고백을 자신의 언어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 우리가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듣는다.” 그들은 듣기를 기다리고 있다.

### ◆기업 예산에서 배울 점

예산은 교회의 선교적 목적을 도울 수도 있고, 가로막을 수도 있다. 필자는 민간 기업에서 관리자로 일해왔고, 30년 넘게 경영학을 가르쳤다. 그래서 교회가 배워야 할 것이 기업 예산에 있다고 느낀다.

기업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바꾸려 할 때 반드시 하는 일이 있다. 예산을 재배치한다. 자신들이 말하는 우선순위에 돈을 따라오게 하는 것이다. 새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바뀌면 ▲직원 증가 ▲관련 투자 ▲목표 지출이 자동으로 뒤따른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선교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예산이 그것을 가장 먼저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말뿐이다.

### ◆목회자들의 의견

몇몇 미국 목회자들에게 “교회 예산의 50%를 선교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물었다. 한 목사는 이 아이디어를 적극 지지하며 이렇게 말했다. “교회 성도들이 '내가 낸 헌금의 절반이 선교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히려 더 기쁘게 헌금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통찰을 환영해야 한다. 다른 목회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예산을 그런 방식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모든 변화는 “어렵다”는 고백에서 시작된다.

최승연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세저장 해임면도
-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출발기금

**침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 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돈기갑)
- 전국 선포금융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http://www.kamco.or.kr) 문의 1588-3570








# ‘빅뱅’은 정말 창세기 1장을 부정하는가?

조덕영 박사  
창조신학연구소 소장



1. 빅뱅과 성경 계시 비교는 다른 차원이다.

1) ‘빅뱅’론은 성경적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 계시는 초월(超越) 계시요 과학 영역은 초월에 대응하는 내재(內在)의 영역이다. 초월과 내재는 직접적 비교 대상이 아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신 계시로 믿는다. 반면 과학은 그 피조 세계의 질서를 탐구하는 즉 내재를 다루는 도구의 학문(causa instrument)일 뿐이다.

2) 인류 역사를 통해 목격한 것처럼 과학은 오류를 토대로 발전한다. 즉 과학은 오류를 하나씩 제거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Carl Sagan). 언제나 특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나 그것은 잠정적이다. 가설이 세워지지만 그 가설도 언제나 반박될 수 있다. 이렇게 과학은 언제든지 수정과 반박이 가능한 학문이다(Karl Popper). 반면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3)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과학의 질서를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니므로 참된 과학은 당연히 성경적 질서와 조화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무리한 성경 적용이 사이비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내재의 도구를 다루는 과학(causa instrument)을 내재의 원인인 창조주 하나님(causa prima)의 초월 계시에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미숙한 집착은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비 학문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이것이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이다.

2. 정상상태 우주론과 팽창 우주론

1) 우주의 기원에 대한 생각은 ‘우주형태론’(cosmograpy)과 ‘우주생성론’(cosmogony)이 있을 수 있다. 인간은 오래 전부터 인간이 사는 세계의 이미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절대자의 창조-섭리로 보려는 관점과 자연-우연 발생의 관점에서 보려는 두 입장이자. 이 두 설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대단히 다양한 양상을 가진다. 왜냐하면 기원론은 필연적으로 지구와 생명과 인간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 신화와 종교와 민속과 문화와 사회적 해석 시기를 거쳐 기원론은 고대 헬라 철학자 중심으로 시작된 천동설(geocentric theory)과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heliocentric theory)을 지나며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3) 한때 우주기원론은 H. 본디, 프레드 호일(1915-2001)이나 위클라라 싱 그리고 한때 아인슈타인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상상태우주론이 지지를 받는 듯했다.

3. 우주 팽창론(빅뱅론)으로 기울어진 과학

1) 정상상태우주론은 오래가지를 못했다. 1929년 허블(1889-1953)이 도플러 효과에 의한 적색편이(red shift)를 관측함으로써 팽창하는 우주를 발견하고, 1948년 조지 가모프(1904-1968)가 빅뱅(대폭발)에 의한 우주기원론을 제창한 후, 동년 프레드 호일은 정상 상태 이론을 내었으나, 1965년 미국 벨(Bell)연구소 연구원들이 우주배경복사를 발견하여 노벨상을 수상(1970년)하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은 최근에는 과학적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2) 물론 빅뱅 우주론도 이론이기에 여전히 딜레마들이 남아 있다. 빛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인 우주의 지평 밖에 위치하는 사건들에는 어떻게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우주의 지평 문제’ 문제나 어떻게 인류가 우주에 서식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편평도의 문제, 원시 입자의 존재 등에 대한 의문은 빅뱅우주론의 완벽성에도 틈새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계속 던져왔다.

3) 최근 우주 최초시기에 근접한 분자가 발견되었다는 <네이처>지의 논문 기사가 나왔다.

전문학계에서는 수소화헬륨(HeH+)을 우주 진화(생물 진화와 혼동하지 말 것)의 시발점으로 여

긴다. 우주가 식고 수소화헬륨과 수소 원자가 결합하면서 비로소 별과 은하의 주원료인 수소 분자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논문 대표 저자인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의 롤폴 귀스텐(Rolf Güsten) 박사는 “수소화헬륨의 존재는 수십 년간 천문학의 딜레마였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초기 우주의 화학반응에 대한 의심이 해소됐다.”고 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빅뱅은 성경적인가를 생각해 보자. 최소한 정상상태우주론보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주장이 과학적으로 더욱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는 데 합의 실리는 관측이 한 가지 더 나왔다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전부터, 빅뱅이 성경의 오류성이나 무오류성을 입증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4. 과학의 본질과 성경 계시의 진리는 직접적 비교 대상이 아니다

1) 혹시 우주의 물질이 한때 한 점에 뭉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그곳에 물질이 한 점으로 있었는지? 그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으며 그 태초 물질은 어디서 왔고 무엇이 폭발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뒤틀려서 물질을 담은 공간은 어디서 왔고 시간은 어떻게 우주에 들어온 것인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 하셨는지 이런 문제들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2) 과학적 판단은 언제든지 변하고 수정될 수 있다. 대 과학자 뉴턴(만유인력, 기계론)도 아인슈타인(통일장, 정상상태론 등)도 스티븐 호킹(타임 매진 주장 등)도 그들의 이론이나 주장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으며 착각이었다고 고백하거나 수정되었다는 점을 기억하라. 오히려 그렇게 수정되는 것이 건전한 과학이고 과학의 당연한 본질이다.

3) 반면 성경은 여전히 세상과 생명의 기원과 인류의 구원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책으로 굳건하다. 그리고 최근의 수소화헬륨의 관측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한 가지 증거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전부터.

5. 빅뱅은 창세기 1장과 조화될 수 있는가?

1) 그렇다면 이제 빅뱅은 창세기 1장과 조화될 수 있는가 살펴보자. “빅뱅우주론”은 21세기 가장

유력한 과학자들의 신뢰를 받는 우주기원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터. 또 어떤 탁월한 과학자가 나타나 이 이론을 미세 조정할지 아니면 뒤집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2) 그렇다면 성경은 어떠한가? 필자가 보기에 성경은 ‘빅뱅’을 긍정도 부정도 요구하지 않는다. 즉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은 빅뱅의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그 유사한 방법으로 하셨는지 말씀하시지 않는다.

3) 이것은 인류가 찾아서 탐구할 ‘아디아포라’(adiaphora)의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과학적 발견은 어떤 또 다른 결론을 유도해낼지 아무도 모르며 언제든지 유동적인 것이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사실을 선포할 뿐 과학적 증거인 ‘빅뱅’을 말하는 책이라 할 수 없다.

4) 다만 빅뱅은 무조건 반성경적이라는 억지 주장은 제발 이제 함부로 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저 (늘 유동적인) 최근의 가장 유력한 과학적 이론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그래서 2019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3명도 어김없이 모두 우주팽창론자들이었음에도 전혀 분노하거나 실망할 거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5) 분노하는 일부가 있기는 하다. 성경적 창조론자들이 아닌 ‘빅뱅’을 수용하면 무조건 불신자라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성서근본주의자들이나 ‘창조과학자’들만 실망하고 분노할 뿐이다. 성경은 어떤 과학적 주장이나 발견 앞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함을 잊지 말자.

6. 창조 연대에 대한 자유함

1) 창세기 1-11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창조의 시기를 주전 4000여 년 전으로 보는 것이나 과학이 지구의 나이에 대해 대략 2500만년으로 시작(1850년)하여 2000만년(1862년, 크리스천과학자 Kelvin), 4000만년(1897년, Kelvin), 10억년(1921년, Rayleigh), 45억년(A. Holmes), 최근(2018년) 대략 46억년으로 확정되어 오며 심각한 충돌을 야기하는 딜레마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함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해석의 핵심적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7. 과학으로(빅뱅이든 창조과학이든) 창세기 1장을 재단하지 말라

1) 이제 창세기 1장과 빅뱅의 입장을 결론 내어 보자. 즉 빅뱅은 인류가 현재까지 찾아낸 우주 기원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기원론이라 할 수 있다.

2) 다만 이 이론은 물질과 공간과 시간의 기원에 대해서는 뚜렷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가 없으며 물질은 왜 그곳에 모여 있었으며 빅뱅이 일어난 원인과 동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3) 그리고 성경은 빅뱅과 달리 그저 물질과 공간과 시간의 창조에 있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선포한다.

4) 빅뱅으로 창세기 1장을 설명하려는 것은 초월의 성경 계시를 내재 학문인 과학 아래로 격하시키는 것이며 빅뱅을 비과학적 주장이라고 무조건 반박하는 것도 옳지 않다.

5) 과학적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성경의 내용과 해석을 수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전혀 계시가 아닐 것이다. 또한 수천 년 동안 교회 전통을 따라 이루어진 성경에 대한 해석 방식을 20세기 시작된 창조과학이라는 운동으로 수정하고 재해석하는 방식도 전혀 옳지 않다. 이 방식도 성경 계시의 초월성을 무시해 버리는 아주 나쁜 해석 방식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과학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 인류는 성경을 아주 어리석게 해석해 왔다는 이상한 결론에 빠져버리게 되어버린다. 그러면서 과학은 과학 시대의 선지자나 제사장의 자리로 올라가 버리게 되는 큰 참사를 만들어버리게 될 것이다.

6) 성경계서 주신 역사 속에서 인류에게 지속적으로 내려주신 참된 창세기 해석법을 찾아야 한다. 즉 바른 해석의 문제다.

따라서 빅뱅을 긍정하건 빅뱅에 큰 반감을 가지건 그 같은 태도는 창세기 1장 해석에 그리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없다.

##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덤벨을

병문안을 가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환자로 착각이 될 정도로 병원에 환자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그때 평소에는 잊고 있었던 ‘내가 건강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는다.

건강이 가장 절실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보다 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건강의 소중함과 운동의 필요성을 크게 깨닫는다. 건강한 몸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그래서 몸의 위기 앞에서 몸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느냐가 건강의 큰 관건이다.

성공적으로 건강의 위기를 극복해 낸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몸은 자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시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것도 예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생각과 삶이 단순해지고, 자신과 함께 트레이드 말에서 달리는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식탁을 대하며 거룩한 포만감을 느끼고 절제하는 축복을 맛보기도 한다.

매일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 두신

삶의 건강한 달란트를 찾아내면서 하루하루가 작은 축제의 연속으로 변한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우울증과 자살, 심각한 대인 기피, 자기혐오, 멸시 그리고 열등감 등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많은 사람이 바쁜 삶에 쫓기며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적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친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건강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삶과 습관, 행동, 그런 삶의 패턴에 익숙해진 가치와 생각, 그 너머 영적인 건강의 마지노선이라

고 생각해야 한다. 삶의 우선순위를 가치관을 바꾸고, 마음의 변화와 더불어 훈련으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새로운 행동과 습관을 만들어서 건강한 크리스천의 삶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것은 크리스천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다.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이라고 말했다. 이 말에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동시에 살아야 한다는 자혜가 담겨있다.

필자도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오늘부터

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덤벨을’ 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에게 주신 몸의 성전을 하루 건강하게 지켜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엡 5:29-30).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 혼, 육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건강 전도사 정주호가 응원한다.

정주호 대표(스타트레인, 재활과학박사)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 MBTI와 현대사회의 관계성



양기성 박사  
웨슬리언교회  
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21세기에 들어서며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려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시 주목받는 심리 도구가 바로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이다. MBTI는 원래 2차 세계대전 당시 사람의 적성을 파악해 직업 배치에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심리 유형 검사로, 용의 심리유형 이론을 토대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MBTI는 직장, 가정, 교회, 학교 등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대화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심지어 하나의 문화 코드로 자리잡고 있다.

MBTI의 핵심은 인간의 성격을 에너지 방향(E-I), 정보 수집(S-N), 의사 결정(T-F), 생활 방식(J-P)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조합을 통해 총 16가지 성격 유형이 도출되는데, 사람들은 이 유형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고요한 공간에서 생각을 정리할 때 힘을 얻는 내향형(I)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사람들과의 활발한 소통 속에서 에너지가 생기는 외향형(E)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단순히 “이해할 수 없는 성격”으로 치부하지 않고, 서로 다른 사고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MBTI가 널리 확산된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성찰의 도구로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MBTI는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지도를 제공한다. 특히 청년 세대는 MBTI를 통해 자신의 특징을 발견하고, 타인과의 관계 방식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너 MBTI 뭐야?”라는 질문이 인사말처럼 사용되는 사회적 풍경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러나 MBTI의 확산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MBTI 유형을 절대적인 성격 규정이냐 운명적 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위험하다. 인간의 성격은 유동적이고 다층적이며, 상황과 경험에 따라 변화한다. MBTI는 인간 심리 전체를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단지 성향을 이해하는 하나의 ‘창문’일 뿐이다. 어떤 유형이 더 우월하거나 열

## MBTI 맹신·절대화하면 안돼 올바르게 사용하고 타인 깊이 수용하고 공동체 속 조화 만들 수 있어

등한 것이 아니며, 유형은 절대적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은 MBTI를 일종의 ‘라벨링’ 도구처럼 사용하여 타인을 단정하거나 배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MBTI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그럼에도 MBTI가 현대 사회에서 가지는 긍정적 가치는 분명하다. MBTI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고유한 강점을 발견하게 하고, 타인과의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돕는다. 교회 공동체와 조직 현장에서

MBTI는 지도자와 구성원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J 유형과 유연하고 즉흥적인 P 유형은 사역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서로의 장점이 빛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또한 MBTI는 상담과 코칭 영역에서도 의미 있게 활용된다. 자신의 감정과 사고 패턴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MBTI는 무엇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무엇이 자기를 성장시키는지에 대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지치는 F 유형에게는 경계 설정의 필요성을 일깨워줄 수 있고, 논리 중심의 T 유형에게는 관계적 소통의 중요성을 되돌아보게 할 수 있다. 이처럼 MBTI는 개인의 성찰과 성장을 돕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MBTI의 가치는 사람을 규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과정에 있다. 우리는 각자의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러한 차이는 갈등의 이유가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MBTI는 이러한 이해의 출발점이 될 뿐 아니라, 조직과 공동체,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건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MBTI는 단순한 성격놀이를 넘어, 현대인의 자기 이해와 관계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구이다. 그러나 그것을 맹신하거나 절대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MBTI를 올바르게 활용할 때,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타인을 더 깊이 수용하며, 공동체 속에서 더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더 성숙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뿐 터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빌립보서 2:3)

“아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마태복음 7:3-5)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로마서 12:10)

“스스로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너 자신을 살피라.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라.”(갈라디아서 6:1-2)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린도전서 10:24)

## 社 說

# 교회 재산 ‘내 것’ 아닌 ‘하나님의 것’

교회 재산을 교인들의 총유로 인정한 법 정신과 판례를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일부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일 한국교회법학회 주최한 ‘교회 재산의 사유화 방지와 공공성 확보’ 주제 학술세미나에서 서헌재 교수는 교인들의 총유 재산을 악용해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누차 강조했다.

서 교수는 ‘교회 재산은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제목의 기조 발제 중 최근 몇몇 교회에서 일어난 사례를 열거했다. 최근 일부 교회가 문을 닫거나 다른 교회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교인들이 담합해 교회 재산을 사적으로 처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거다. 또 합병이라는 이름으로 위로금 또는 퇴직금을 주고받으며 사실상 담임목사직을 사교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교인들 간의 분쟁이 격화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교회의 소유와 주권은 사람이나 제도, 재산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이 분명하다”고 전제했다. 다만 “국가법 질서 내에서 교회는 교인 ‘총유의 재산’으로 규정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이 교회에 속한 모든 재산을 교인 ‘총유’로 규정한 건 목회자 등 대표 자격을 가진 소수에 의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이걸 교인들 마음대로 교회를 처분해도 되는 양 악용하는 게 문제라는 거다.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헌금과 기부,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부동산 및 금전채권 등 일체로 형성된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이전 절차를 거쳐 교회 재산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 재산은 대표자 명의가 담임목사로 돼 있더라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나눌 수 없다. 교회의 경우 어느 한 개인의 재산이 아닌 교인 전체의 ‘총유’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사실 역사가 오랜 교회의 경우 교회에 축적된 재산은 선대 교인들의 헌금과 부동산 가액 상승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동안 교회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하지 않은 지금의 교인들이 이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서 교수는 이 문제와 관련 “실제 교인 수가 줄어드는 교회에 새로 전입한 교인들이 다수결로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교회 재산 소유권은 교회가 평화로울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교인들이 서로 분열돼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분쟁이 발생하면 누구를 총유권자로 보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했다. 이 지적은 교회 재산 사유화 방지와 공공성 확보가 한국교회에 매우 중요한 안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회를 새로 설립한 교인들은 기존교회 인원의 3분의 2를 넘어야 이전 교회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이는 한국교회 내 분쟁으로 인한 분열과 재산귀속에 관해 그 이전 50년 동안 이어진 법 규정을 바꾼 새로운 판례

라는 의미가 있다. 그 이전 대법원은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또는 합유)에 속한다고 판시했다(1993. 1. 19. 선고 91다1226). 또 교회의 소속 교단 변경은 교인 전원의 의사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1978. 10. 10. 선고 78다1716).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한 건 사단에 대한 통일적 규율과 함께, 개별 교인들의 종교의 자유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교인이 교회를 탈퇴하거나 새 교회를 세운 경우, 기존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여할 권리를 잃게 만든 게 핵심이다. 이는 재산 분쟁과 관련된 사단으로서의 교회에 대해 다른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사법질서의 통일성을 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런 판례를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일부 교회의 분규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사적 소유인 ‘총유’ 재산을 교회 정관과 총회 결의에 따라 교인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이 문제를 유발한 요인이다.

교회 해산이나 다른 교회와의 합병 시 남아있는 교인들이 교회 재산을 사유화하고 마음대로 처분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재산 처리에 관한 내용을 교단 헌법이나 교회 정관에 세밀하게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해산·합병에 대비하는 정관 규정을 둘 것을 조언하고 있다.

교회 내에서 다툼이 일어나 교인과 교회 재산이 나뉘는 상황까지 가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이로 인해 교인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신뢰가 깨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법정으로 가기 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한 처신일 것이다.

사회법이 교회 재산을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총유’ 재산으로 인정한 건 분쟁에 따른 분열을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제동장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성도라면 교회 분규에 있어 법률적 규정을 따지기 전에 그 재산이 헌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 헌금은 성도가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교인들 손에서 떠난 교회의 공적 재산이다. 분쟁의 와중에서 이걸 차지하려 싸우는 건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 빼앗아 차지하려고 탐욕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물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행 4:32-35). 내가 가진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나아가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다. 예배와 복음 전파, 이웃 사랑을 위해 온전히 사용돼야 할 교회 재산을 마음대로 나누고 처분하는 건 주님의 몸을 찢는 행위나 다름 없다. 중단하고 돌아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신세가 될 것이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청
---------	---------	---------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10-5169-8291  
광고문의 010-5169-8291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튼튼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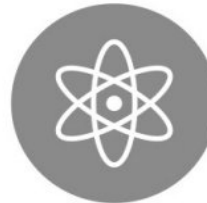
# 항산화 효과, 일반 마늘의 **5배!**

매일 먹는 마늘, 오늘부터  
**153새싹마늘로 바꿔보세요!**




**화학비료&병충 ZERO**

물고기와 식물의  
공생 시스템으로 키운  
100% 친환경 새싹마늘입니다.




**영양소의 극대화**

영양소를 빠르게 흡수해  
높은 영양가와  
신선도를 자랑합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법**

물 사용량 및 농업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환경과 사람에게  
건강한 농법입니다.




**특허받은 아쿠아포닉스 재배 방식**

깨끗한 물에서 화학비료와 병충해 없이  
건강한 새싹마늘만을 키우는 재배 방식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특허번호 : 제10-1581729호

**판매처 : 153 헬스코리아 주식회사**

상품명:153 새싹마늘 원산지:국내산 포장재질:PET 보관방법:구입 후 냉장보관 생산자:두두야쿠아  
인증번호:제10307836호 적업전주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203-9~10 소비자가상담:070-7895-1597  
\*뿌리 채취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씻어서 드세요.



**제품 구매하러 가기 →**  
153새싹마늘 스마트스토어

**N 153 새싹마늘**

구매 문의 **070-7895-1597**

무농약  
(NON PESTICID)

농림축산식품부



## 심리적 상담 치유 (예언의 말씀)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박힌 고질병을  
혼자 고심하지 말고 (한문으로)  
“이름과 나이”만 알려 주시면  
고목 나무에 꽃이 피어 인생길을  
밝게 살 수 있도록 치유하게 됩니다.  
성격, 사명, 출세, 성공, 실패, 건강,  
병약, 단명, 장수, 가정, 자녀, 부모,  
부부의 금실, 이혼, 위급한 사고,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밝히  
치유를 받게 됩니다.  
나는 몸이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게 된다”고 했다.  
고전4:10

송백 목사 010-3809-6487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6길 4

##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 2.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 3.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 4.주소: 충북 영동읍 479-8외 1건.
- 5.토지: 2,756m<sup>2</sup> (833.69평)
- 6.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sup>2</sup> (139.75평) + α(40평)
- 7.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냇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강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대표 김 덕 겸 목사

-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장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2@hanmail.net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 부흥회 지원

-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 한샘교회 담임목사
-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 現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 現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한샘교회

- 1995.9 개척
- 2000.4 1차 성전건축
- 2008.1 2차 성전건축

### 방향 및 성령의 역사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 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끊어짐

### 신청 방법

이승현 목사:  
010-8913-7777  
한샘교회: 032-512-3375

### 지원 대상

-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 낙도·오지교회
- 3 無 부흥회:
- 사례, 숙소, 식사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화성시·봉담읍·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폴, 토익 등 대용량 단어장





#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즐겁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청교(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창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날 새를 함께 나누어

# 조나단 에드워즈와 부흥의 중요성 (7)

성령의 이러한 증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고 압니까? 이처럼 영광스러운 진술을 우리의 가련하고 작은 체험의 수준으로 저하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같은 문단에서 그는 존 플라벨(John Flavel)이 여행을 하던 중 겪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체험을 언급합니다.

다음은 자기 아내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체험들을 그가 변호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아내의 체험을 상세히 기술한 다음에 그 체험들을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아직도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의 환각 상태와 공상과 지나친 상상력의 소치로 기각시켜 버리려는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도 그러했습니다. 에드워즈가 그것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을 들어 보십시오.

“그러한 것들이 광신이거나 병든 뇌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나는 내 뇌가 그런 병에 오래 걸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것이 정신 착란이라면, 인간 세계가 이러한 자비롭고 온유하고 덕스럽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정신 착란으로 다 사로잡힐 수 있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설명한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진 종교에 대한 관념은 어떤 것입니까? 다음의 성경 표현들과 부응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 영광 충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신,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

니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한 일, 어두운 데서 불려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마음에 떠오르는 셋별 등등입니다.

만일 지금 언급한 이 경우들이 이러한 표현들과 서로 상응하지 않는다면 그것들과 상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드워즈는 특별한 시기에 배워지고 있었던 비상하고 예외적인 체험을 그런 식으로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시험해 보고 질문을 던져 보고 의심해 보지만, 결국 우리로 하여금 혼란케 하거나 혹은 낙담케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이 에드워즈입니다. 토마스 셰퍼드(Thomas Shepard)가 “열 처녀 비유” 연구에서 했던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에드워즈는 고무시키고 자극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담케 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속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간절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적응의 말씀을 드림으로써 끝을 맺겠습니다. 적용하지 않고 끝내는 것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기념하는 일을 가짓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나단 에드워즈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오늘날의 기독교 상태와 관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처럼 필요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온 모든 것을 취하고 그 위에다가 1748년에 그가 쓴 논문을 첨가해 보십시오. 그 논문의 제목은 이

땅에서의 신앙부흥과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특이하게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분명한 일치를 이루고 눈에 보이는 연합을 이루도록 촉진해 주기 위한 겸비한 시도(An Humble Attempt to Promote Explicit Agreement and Visible Union of God’s People in Extraordinary Prayer for the Revival of Religion and for the Advancement of Christ’s Kingdom on Earth)였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일부 친구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드워즈에게 편지를 써서 이것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에드워즈가 이런 일에 동조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책을 쓸 것인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함께 참여하라고 간청하는 이 위대한 논문을 썼던 것이고,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되 방법은 다양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영광이 드러날 때가 가까이에 올 때 따라 귀중히 여기는 것들을 중심으로 매우 특별하게 주장하고 간청했습니다. 그것은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진술입니다. 분명히 부흥은 현재의 필요와 교회의 상태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진술하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최고로 강조하지 않는 변증학은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고 있었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극히 철학적이고 논증적인 변증학을 소개해 왔습니다. 또한 현대의 예술과 현대의 문학과 현대의 드라마, 정치, 사회관에 대하여 논증했습니다. 마치 필요한 것이 그것인 양 말합니다.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부어 주심, 기쁨 부어 주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부어 주심의 필요성을 끝내 인식하게 하지 못하는 어떠한 변증학도 끝내는 소용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 1730년대의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황과 매우 방불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있다고 봅니다. 지난 세기에는 보일 강좌(Boyle Lectures)가 개설되어 변증학을 발전시켜서 복음과 신앙을 변호해 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무모하게 똑같은 일을 해 왔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버틀러 감독의 유명한 유추(Analogy)도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전체 상황을 바꾸는 요인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체 상황을 바



꾸어 놓은 것은 부흥이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부흥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에드워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부흥의 필요성을 깨우쳐 줍니다.

그가 이 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분명히 알아 둥시다. 부흥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도 운동과 부흥 사이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부흥 시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결신을 요청하는 것은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유명하고 뛰어난 복음주의 지도자가 저에게 어떤 전도 운동에 참여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대담한 열심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것은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때를 지어 앞으로 나아옵니다.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감정도 없는 데도 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읽지 않았습니

다. 우리는 감정이 하나도 없는지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아무런 감정을 가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면, 실

제로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깨닫는 일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는 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일을 어느 사람이 아무런 느낌 없이 할 수 있었습니까?

부흥에 대한 에드워즈의 글을 읽어 보십시오. 그가 늘 사용하는 어휘는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쇄신(renewal)’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흥이라는 어휘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쇄신’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통해서 나타내려는 의도는 우리 모두 중생 시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이미 가졌을 것을 깨닫고 그것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해보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부흥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부흥이란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그

것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의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자각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부흥이 진정으로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로 연결됩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작고한 로널드 나스(Ronald Know)가 광신주의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일부 복음주의자들에게 매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는 로마 가톨릭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에드워즈나 그의 유명한 설교를 언급합니다.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면에서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운통 신학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를 산업에 적용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거나, 교육이나 예술이나 정치에 적용시키는 것만을 염두에 둬으로써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John 4:7 NIV

When a Samaritan woman came to draw water, Jesus said to her, “Will you give me a drink?”

- Samaritan : Samaria(고대 팔레스타인 북부 지방)의 형용사형
- a Samaritan woman : 어떤 사마리아 여인
- draw : (액체나 가스를) 퍼올리다
- to draw water : 물을 길러 (목

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

- Will you :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 거의 모든 프리포즈는 “Will you marry me?”라고 말함  
- a drink : 마실 물

요한복음 4장 7절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마실 물 좀 주시오.”

카카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KRC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의

## 영혼의 양식(28)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 본문

역대상 29장 10-14절

### 서론

추수감사절은 단지 “한 해를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라고 인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또 풍성하게 거둔 사람만 감사하는 날도 아닙니다. 오히려 병원 중 환자실을 거쳐 나온 사람이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듯,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은혜였

구나”를 다시 깨닫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버티고 견뎌서, 내가 일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러나 성경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묻습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전 4:7)

### 본문

오늘 본문인 역대상 29장은 이 질문에 대한 믿음의 답을 보여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감동되어 기쁨으로 드릴 때,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대상 29:14)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고백도 같습니다. 내 삶의 시작도, 과정도, 열매도 결국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이 사실이 마음에 새겨질 때, 억지로 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영혼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사가 시작됩니다.

#### 1. 다윗 생애의 마지막, 성전 준비

역대상 29장 1절은 다윗의 삶과 사역을 정리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22장부터 시작된 성전 준비의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뚜렷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밖의 필증을 하십니다. “너는 전쟁의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대상 22:8)

여기서 우리는 현실적인 신자의 고민

을 봅니다. “나는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기도도 했고, 헌신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은 네 몫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첫째, 마음이 상하고 서운해져서 주저앉는 사람, 둘째, “내가 직접 하지는 못해도,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방향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두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직접 짓지 못하면, 준비하는 사람이라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솔로몬을 위해,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만큼의 준비를 해 놓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셨지만(대상 22:10), 그는 아직 어리고 미숙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29:1) 이 말은 단순한 아버지의 걱정이 아닙니다. “이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주셔야만 하는 일입니다”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다음 이어지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공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29:1)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 공간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잘 짓자”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자”고 호소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나는 교회를 ‘내가 다니는 종교기관’으로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집’으로 보는가?”

#### 2.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관점’이다

오늘 시대는 참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감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차이는 가진 것의 양에서 나는 차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그 시선을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11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이다.”(14절) 즉,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것”이며, 그 시작과 공급자는 하나님입니다. 이 관점이 바로 감사의 영성입니다.

#### 3. 다윗의 헌신 3단계, 사랑 → 자원함 → 기쁨

역대상 29장은 헌신이 어떻게 부딪에서 기쁨으로 바뀌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대부분 사람은 “헌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깨부터 무거워집니다. “또 내놓으라는 거구나. 또 시간을 빼앗기겠구나.”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헌신은 기쁨을 빼앗는 사건이 아니라, 기쁨이 폭발하는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그 과정을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1) 1단계 사랑의 헌신 -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므로”(29:3)

다윗의 헌신은 의무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므로...”(3절) 여기서 “사랑하므로”라는 것은 마음이 기뻐하고, 기뻐하고, 스스로 원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수고는 노동이지만, 사랑이 있으면 수고는 기쁨이 됩니다. 다윗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준비한 것 외에도 내 사유한 금을 더 드리노나...”(3절)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곧 오빌의 금 삼천 달란

트와 순은 칠천 달란트를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오빌의 금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 왕들이 자신들의 보물창고에 따로 보관하던 최상급 금이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말하면,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비싼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고를 드리겠다는 마음, “남는 것, 여분,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다는 결단, 그 자체를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기쁨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사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시 27:4) 그는 왕궁보다 성막을 더 좋아했습니다. 권력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이 헌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은 의무이지만, 사랑이 있는 헌신은 예배가 됩니다.

#### 2) 2단계 자발적 헌신 - “다 즐거이 드렸고”(29:6)

다음 장면은 지도자들의 헌신입니다. “방백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다 즐거이 드렸고.”(6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즐거이 드렸다”입니다. 9절의 “자 원하여 드렸다”와 같은 어근입니다. 그들이 드린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금 5천 달란트(약 170톤), 은 1만 달란트(약 340톤), 그 외에 동과 철, 보석들. 오늘 시세로 환산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수십억 원 이상의 규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규모보다 마음의 상태를 더 강조합니다. “백성들도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나...”(9절) 여기서 “기뻐하였으니”는 드리고 나서 한숨 쉬며 후회하는 기쁨이 아니라, 드리는 과정 자체가 기쁨이 되는 상태입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한다는 감격, 하나님의 집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영광,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는 자녀의 기쁨,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헌신은 우리의 것을 빼앗기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

쁨에 참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 3) 3단계 온전한 마음의 헌신 -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음이라”(29:9)

9절은 헌신의 질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온전한 마음이란 돌로 나뉘지 않은 마음, 계산과 숨겨진 의도가 섞이지 않은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들이 ‘눈치’ 때문이 아니라,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 때문

에 드렸다고 합니다.

그 기쁨은 다윗에게까지 흘러갑니다.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니라.”(9절) 백성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자, 그 기쁨이 지도자에게도 번지고,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의 분위기가 감돕니다. 3절의 사랑이, 6절의 자원함을 낳고, 9절의 기쁨과 온전한 마음으로 완성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헌신의 흐름입니다.

### 결론

#### 4. 다윗의 찬양(10-14절) — 헌신의 결론은 하나님께로

이 정도 규모의 헌신이라면 왕으로서 “여러분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 민족,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백성을 치켜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 법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선을 백성에게 두지 않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10절) 다윗은 알았습니다. 백성이 드린 헌신도, 사실은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헌신의 결론을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돌립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다 주께 속하였사오나...”(11절)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쟁의 승리도, 왕국의 번영도, 지금 눈앞에 쌓인 모든 재물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재이시나...”(12절) “부와 귀”는 단지 돈과 명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삶의 기쁨, 건강, 사람들의 신뢰, 위치, 영향력까지 포함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

는 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이만큼 모을 수 있었던 것, 내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 모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리더십의 주권도, 성공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13절) 백성의 헌신 앞에서 다윗은 감동합니다. 그러나 그 감동의 방향은 “백성이 참 대단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백성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들 참 훌륭하다”를 넘어서 “하나님, 이런 동역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곳에 성숙한 감사가 자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이다.”(14절) 다윗의 신학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드림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자량이 될 수 없고, 무거운 짐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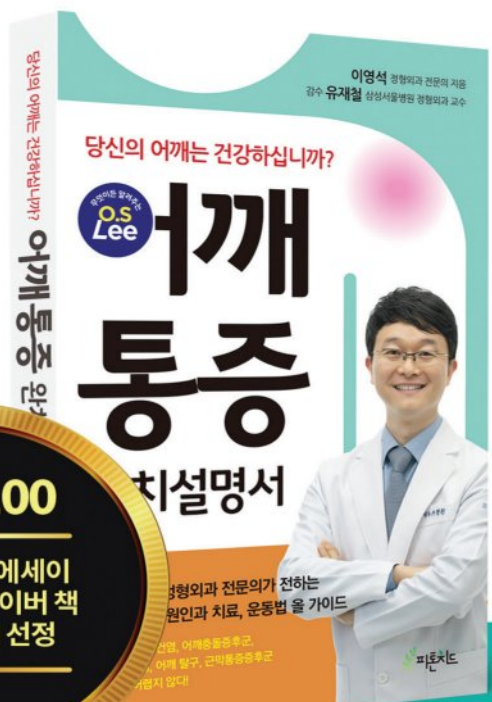
### 마무리 기도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을 주소서. “주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와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원호 목사 (서울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능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 은혜의샘물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가? (2)

셋째, 정열에 불타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밀 불이 강해야 생나무를 태웁니다.' 밀 불은 자신의 불입니다. 자신의 불이 약하면, 남에게 불을 주지 못합니다. 밀 불이 약한 사람이 선 불리 남에게 불을 주려 하다가는 자신의 불마저 꺼뜨리고 맙니다. 자신의 밀 불은 믿음의 불이요, 성령의 불이요, 남을 사랑 하는 정열의 불입니다. 이 불이 강하지 못 하면, 미움과 증오와 유혹과 시험과 공격 과 비방과 헐뜯고 소외와 갈등과 같은 생

나무를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에 오 히려 먹히고 맙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 이 사랑의 불로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에 는 타인의 마음에 불을 던질 수 있습니 다. 미움보다 사랑이 강할 때 미움을 태 을 수 있습니다. 유혹보다 믿음이 강할 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맑으면 타인의 마음 을 맑게 할 수 있습니다. 신념과 믿음이 강하면 타인의 강박한 마음도 할 수 있 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불이 강하면 타인

의 마음에 불을 던질 수 있습니다. 겉레 가 깨끗해야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이 튼튼해야 철근을 뒀 수 있습니 다. 밀 불이 강해야 생나무를 태울 수 있 습니다.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었습니다. 예수 는 뜨거운 사랑의 불을 세상에 던지셨습 니다. 이 불이 세상에 옮겨 붙었을 때에 이 불길을 진압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 다. 아람 사람들의 복수에 대한 집념은 가공할 정도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살해

당하면 그 피살자의 친인척에 속한 남자 들은 복수의 의무를 지게 되며, 이 복수 의무가 주어지는 혈연집단을 '카르사'라 고 합니다. 만약 복수하지 못하거나 복수 에 소홀하면 그 카르사의 명예는 형편없 이 타락하여 그 카르사와는 교역도 결혼 도 기피하기 때문에 카르사간의 싸움이 종족간의 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적 지 않다고 합니다. 같은 혈연집단끼리 이 동하며 사는 사막의 유목생활이기에 종 족 안전에의 연대책임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 피해에 대한 보복은 이미 구 약성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고엘 하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피의 복수자'라는 뜻입 니다. 피의 복수자란 복수의 의무를 지닌 가장 가까운 근친을 말합니다. 이 사람의 복수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하지 않습 니다. 당시의 법은 '눈에는 눈으로, 아에는 이로' 같은 동해상해법입니다. 가해자에 게 동일한 해를 입히는 처벌법을 말합니 다. 따라서 성령은 과실 치사자들을 보호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토록 했던 것 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혁명적인 교훈은 피를 피로 갚으라는 사막의 계율을 바꾸어 피 를 용서로 갚으라는 사랑의 교훈을 십자 가의 희생으로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는 예수의 사랑의 불을 받은 사람들입니 다. 이 불을 강한 밀 불로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을 세상에 나누어주어야 합 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제공

### 향유옥합

## 원죄의 3대 특징



죄의 유전성에 대하여는 많은 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것은 현 대인들은 한 개체로서 존재하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본래 인류는 모두 아 담과 하와의 후예로서 한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에이즈도 모태 감염으로 자녀에게 유전됩니다. 자녀 들은 억울합니다. 자녀들은 잘못된 것 이 없지 않은가!

그러나 아쩔 수 없는 섭리이며 운명 입니다. 원죄는 영혼의 에이즈입니다. 그 결과는 유전되며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도록 지음 받은 인간이 왜 죽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원죄 때문 이라는 것보다 더 잘 설명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죽을 운명을 당연시하여 죽지 않게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더 믿지 못하는 참혹한 현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 로 말미암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 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 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 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 (로마서 5:10)

〈산마루서신 <http://www.sanletter.net>〉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 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 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 신앙과 가정

성령께서는 종종 우리가 가던 길을 멈 추게 하시고 통제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통제가 한 번 있을 때 한 번 더 부 서지고 한 번 더 녹아져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유용한 사람이 될 것 같습 니다. 우리 영혼은 여러 번의 통제와 여러 번의 파쇄를 거쳐야만 부드러워지고 온유 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성령님의 통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 음을 거스르지 않고 말씀에 거스르지 않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과 이론을 다 파하여 사모잡아 그리스도께 순복하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사 역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영으로써 사람 을 다룰 수 있으려면 온전히 날마다 자 아를 비워 드리고 성령이 우리를 뚫고 나 갈 때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 니다. 성령으로 영혼을 만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성령께 민감한 사람이 되어 주님 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나타나도록 최선

### 교회오빠

#### 로마서 12:1~2

1 그러므로 형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 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 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 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의 서신서들은 대체로 이론과 실 천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 저 이론, 즉 복음의 일반적 서술이 있는 후에 거기에 근거하여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신서의 어느 다른 곳에서도 본문과 같이 장엄하게 복음과 삶을 연결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장엄 실천' 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무게 있 게, 장엄하게 몸의 예배를 명령하고 있습 니다. 실천은 실천인데, 예배적 무게와 의 미가 그대로 살아있는 실천입니다. 실천 이 곧 예배인 실천입니다.

걱정과 염려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 해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드려놓고도 곧 나가서 세상을 본 받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첫째로, 이 세대는 포기주의입니다. 세 상에 나가보면 하나님은 너무 작고 세상 은 너무 커 보입니다. 세상의 영향력과 그 들의 복음에 대한 반대가 너무 강하고 크기 때문에 결국 믿음을 포기하거나 가 슴 속의 밀실 속에 믿음을 조용히 가두

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꾸어 말하 면,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통해서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으로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루심을 기뻐 게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실 것입니다. 오직 자아의 손실을 많 이 본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안식을 주게 될 것입니다. 만일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열

매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 자아는 온전 히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만 할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 인한 자만이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주 안에서 잃을 때만 주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 하고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 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로 무릎 을 꿇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제공

## 장엄 실천

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밀실에 가 두지 않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된 믿음입니다.

둘째로, 극단주의입니다. 이것은 십자 군적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 씀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에 대 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악마적인 세상 에 당장에 나가서 칼을 휘둘러 다 진멸해 버리고자 하는 충동이 솟아오릅니다. 그 러나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법입 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세상을 파괴하 고자 하는 충동을 예배의 의례로 가다듬 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극렬한 반대에 직면했던 바울은 '발의 티끌을 떨쳐 버리고' 다음 장소인 이고니온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으로 가셔도 거기서 '돌로 치려 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저희가 알고 도망하

여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서도 복음 을 전합니다. 그는 포기하지도 않고, 되지 도 않는 현실에 대하여 행동적 테러리즘 으로 맞서지도 않습니다. 박해만 있고, 실패만 있나요? 아닙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두 곳에서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생 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었습니 다. 이것이 바로 예배적 실천이요, 실천적 예배입니다. 실천이 예배적으로 장엄해야 하고, 예배가 실천을 향하여 열려있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포기하거나 과격한 테러리즘을 주장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창글산 봉목사 제공





# 팀을 하나 되게 하라

한 명의 리더가 그룹을 이끈다는 것은 그 그룹의 관계까지도 관리해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예배인도자가 리더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예배 그룹을 이끌 때 그들 모두 예배 때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하나님께 한 제사를 올려드리게 할 수 있다면, 그가 이끄는 그룹은 함께 누리게 될 기쁨과 감격을 전보다 배나 더 누리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예배인도자는 먼저 예배팀이 갈등 없이 서로 의존하는 팀워크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 1. 비전 제시 :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가장 큰 도구

나는 예배팀에 소속된 사람은 누구나 다 감성이 풍부한 예술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먼저 내가 이들의 감성이 풍부하다고 믿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음악을 통해 평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며, 예술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이유는 그렇게 믿어야 최소한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배팀에 소속된 이 예술가들은 일반적으로 교회 내 다른 성도들보다 감정적으로 좀 더 민감해져 있을 때가 자주 있다.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보기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들이 이들



고웅일 목사

에게는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배팀원들 간의 갈등이 빈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배인도자가 팀 내에서 팀원들 간의 갈등이 생길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인도자의 '위치'이다. 만약 예배인도자가 팀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나치게 방관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중재자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다 보면, 갈등이 풀리더라도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도자를 많이 의식하게 된다.

따라서 예배인도자는 팀원들 간의 갈등을 발견할 때 그 갈등의 내용이 인도자 자신과 관계된 내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당사자들이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주로 비전을 재확인시켜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앞에 두고 있는 예배나 행사에 대한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도록 하는 일이다.

만약, 그런 방법으로 이들의 갈등이 해결되면 자신들이 갈등했던 부분에 있어서 리더를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리더 역시 그 부분에 깊이 들어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언제나 팀원들이 바라보는 곳이 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게 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고 좋은 팀워크를 만드는 비결이다.

따라서 예배인도자는 팀원들 간의 갈

등을 발견할 때 그 갈등의 내용이 인도자 자신과 관계된 내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당사자들이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 2. 리더의 고립 : 서로 의존하는 팀워크 조성

행정은 교회를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어느 그룹이든 그 그룹의 탑 리더(Top Leader)는 최소한의 행정적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리더에게는 자신을 따르는 하부조직원들과의 관계에서 탁월한 행정이 요구된다. 사실 행정을 모르는 대다수의 한국교회 리더들은 자신의 부교역자들과 관계를 유지할 때 문어발 행정 방식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문어의 대가리를 탑 리더라고 할 때 모든 부리더들은 그 탑 리더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로 간의 관계에서는 어색하거나 무언가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공유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는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체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문어발식 행정의 유익이 있다면 모두 리더에게 잘 보이려고 애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은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팀원들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성이 사라지고 서로를 지나치게 경계하고 감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예배인도자 또한 다른 어느 리더들과



같이 문어발식 행정을 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많이 있다. 나는 어느 교회에 가봐도 예배팀원들 중에 누군가는 리더의 곁에 서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본다. 그럴 때 인도자가 실수하기 쉬운 한 가지는,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러다 보면 다른 팀원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기도 하고, 간혹 리더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리더의 측근이 팀원들로부터 적지 않은 오해를 받게 되기도 한다. 예배인도자인 당신이 정말 그 형제나 자매를 주 안에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다른 팀원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인도자가 그 사람과 약간

의 관계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다.

평신도 예배인도자가 자주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자신은 아직도 수많은 회중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며 자신이 하는 가벼운 행동이나 말이 다른 어느 성도들이 할 때처럼 교회가 크게 주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아무리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한 그룹의 예배를 인도하는 위치에 있다면, 스스로 자신의 리더라는 위치가 이름뿐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팀원들에게 있어서 그는 '사역자(Minister)'이다.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고립'을 동반하는 것이며, 이러한 리더의 고립은 어쩌면 하부 조직의 단단한 결속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나는 여러 교회의 예배팀을 운영하면서 나의 행동이 팀원들 간의 관계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다. 리더로서 나는 팀원 중 한두 사람과 친밀

한 관계를 가지기도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머지않아 팀원들 간에 거리감이 생겨나더니 결국 이로 인해 몇 사람이 팀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그것은 예배인도자의 자리가 다른 리더들처럼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이 선망하는 자리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예배인도자는 예배팀원들 간의 단단하고 끈끈한 영적 관계를 형성해주는 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때때로 예배인도자는 팀원들 서로가 리더를 의존하게 하기보다는 서로를 의존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그 리더가 그 자리를 비우게 되는 상황이 올 때도 결코 팀워크가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예배인도자는 예배팀원들 간의 단단하고 끈끈한 영적 관계를 형성해주는 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존재이다.

### ◆고웅일 목사

영남신학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학과 신학을 전공하고,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전 동성교회 찬양디렉터로 사역했던 그는 한국, 미국, 중남미에서 다년 간 한 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교회적 상황에 따른 예배사역의 노하우들을 터득하였으며, 그 외에도 중국, 일본 및 중남미 지역을 다니면서 각 나라 언어로 선교 집회 찬양을 인도해왔다. 『꿈꾸는 예배 인도자』의 저자이며, 현재 미국 LA 카운티 지역에 소재한 주안예교회에서 예배사역을 하고 있다.

#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 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아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5:21-23)



김남수 교수

좋아하는 후배와 점심을 함께 할 때 그는 살면서 일어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내가 새벽기도를 간 사이 한 번도 깨지 않던 젖먹이 아이가 우는 바람에 그날은 새벽잠을 설쳤다고 했습니다. 후배는 아이가 칭얼대자 엄마 젖을 빨며 편안히 자던 아이를 생각해 아빠의 젖을 물렸나 봅니다. 하도 급하니까 시도했던

모양인데 어디 통할 일입니까! 같은 경험에 있는 선배로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가 찾은 것은 젖이 아니라, 바로 엄마이지!”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 성 여인의 대화에서 여인의 관심은 예배하는 장소, 시간 등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예배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what)이 아니라 ‘누구’(who)입니다. 영적인 찬양은 드리는 찬송, 즉 음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와 찬양에 대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고전 14:15)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표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대 크리

스천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들의 심령은 무지와 습관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경건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실제의 모습은 하나님 밖에서 역사나 전통을 고수하는 자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경건한 음악을 찾기 위해 고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고전이란 무엇이며, 고전시대에 음악을 만든 크리스천들이 추구했던 경건 사상과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경건 사상의 본질은 서로 다른 것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때의 음악은 성경이 말하는 음악 형식과 동일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특정 시대의 작풍 스타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심령으로 드릴 수 있는가 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고수하는 자, 경건의 모양만을 갖춘 보수주의자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

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내적 보수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소서 5장 18-20절은 음악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기에 앞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영적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첫 구절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는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진정)와 이해(마음) 없이는 찬양의 가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로 드리는 찬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말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드리는 심령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찬양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결핍된 찬양은 균형을 잃어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에는 신령과 진정의 균형이 요

구됩니다.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자세는 진지하고 열정적이어야 하며, 또한 진리에 기초해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보기에 아름다운 찬양이라 하더라도 드리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인 신령과 진정 밖이라면 쓸데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좇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

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영적인 찬양은 음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에 달려있습니다. 찬양하기에 앞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시오!

최선의 찬양을 위하여

1. 예배소서 5장 18-20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2.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3. 거룩한 찬양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 ◆김남수 교수

미국 남침례신학대학원에서 교회음악석사와 박사를 취득하고,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음악춘추사)과 《코랄 앤딩이 있는 찬송 데스칸트》(미완성출판사)를 작곡하여 출판했으며 〈서쪽 하늘 붉은 노을〉(새찬송가 158장) 외에 여러 교회음악을 작곡했다. 『교회와 음악 그리고 목회』(요단출판사), 『예배와 음악』(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숨겨진 찬송이야기』(아가페북스) 등을 저술하여 교회음악지도자들이 알아야 할 메시지를 나누고 있다.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



## ‘익숙한 찬양’이 ‘새로운 옷’을 입어 더 좋은 앨범 5가지

평소에 흥얼거리거나 예배에서 불러 너 무나도 익숙한 찬양들이 새로운 편곡과 만나 더 좋아진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옷을 입어 더 좋은 찬양들이 수록된 앨범들을 추천해 보고자 한다.

◆나비워십 'Jesus is Rock'  
작년 9월 발매된 '나비워십 2024 이곳에서'에 이어 나비워십이 1년 만에 라이브 워십앨범 'Jesus is Rock'을 내놓았다. 그런데 '실로암', '불을 내려 주소서',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등 당장 지난 주에도 예배 시간에 불렀을 법한 찬양들로 트랙 리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짝 채웠다.

자칫 익숙해져 그 은혜를 잊기 쉬운 찬양 곡들로 하여금 새로움과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이 앨범에는 그 외에도 '예수 열방의 소망', '성령의 불타는 교회' 등등을 나비워십의 시그니처인 과감하고 힘찬 편곡과 세련된 연주, 열정적인 목소리로 노래했다.

워십리더인 김종윤, 이정기 목사와 함께 오랜만에 우미람 목사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 반가운 앨범이다.

◆사랑의교회 찬송키즈 '찬송키즈 CCM 합창'

'꽃들도', '시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천한 능력으로' 등등 당장 내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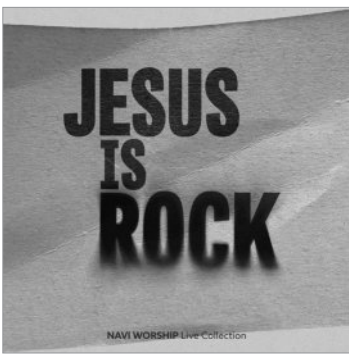
가장 많이 듣는 CCM의 곡목처럼 보이는 이 곡들이 하나의 앨범에 담겨 있다. 그것도 쉽게 들어 볼 수 없는 아이들이 부른 2부 합창으로 말이다.

CCM 그룹 히즈윌(HisWill)의 작곡가이자 프로듀서로 '광야를 지나며', '믿음이 없이는' 등의 명곡을 작곡한 장진숙 지휘자에 맞춰 사랑의교회 찬송키즈 멤버들이 순수한 목소리로 곱게 노래해 질릴 틈이 없다. 원곡들을 좋아하는 분들도 누구나 부담 없이, 그리고 새롭게 들을 수 있는 좋은 앨범으로 추천하고 싶다.

◆Michael W. Smith 'Worship'  
마이클 W 스미스(Michael W. Smith, M.W.S)의 기념비적인 앨범 'Worship'을 CD로 만나기는 어렵지만 다행히도 멜론과 유튜브 뮤직 같은 국내외 음원서비스에서 손쉽게 들을 수 있어 너무 반갑다.

팝스타에서 CCM 탑 보컬리스트로, 거기에 그와는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던 워십리더로의 성공적인 변신을 알렸던 앨범 'Worship'에는 '마음의 예배(The Heart Of Worship)', '내 맘의 문을 여소서(open the eyes of My Heart)',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Above all)' 같은 너무나도 유명한 곡들이 M.W.S의 편곡과 목소리로 불리워 더욱 더 유명해졌다.

편곡과 연주, 유려한 워십 리딩과 진지



나비워십 'Jesus is Rock'



사랑의교회 찬송키즈 '찬송키즈 CCM 합창'



Michael W. Smith 'Worship'



Steven Curtis Chapman 're-creation'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Champion Young People'

한 분위기가까지 지금 들어도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명반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 앨범도 꼭 들어 보시기를 권한다.

◆Steven Curtis Chapman 're:creation'  
이번엔 조금 다른 리메이크(Remake) 앨범을 소개해 본다.

스티븐 커티스 채프먼(Steven Curtis Chapman, S.C.C)은 1962년 생으로 1987년에 데뷔해 40년 가까이 사역하고 있는 베테랑 아티스트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사역 중인데 얼마전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올 겨울 크리스마스 투어 일정을 공개하기도 했고(그것도 아주 뽀빠한), 올해에도 여러 싱글들을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히트곡들을 들려줬는데 자신의

히트곡을 스스로 새롭게 리메이크한 앨범 're:creation'을 추천한다.

최고의 CCM 아티스트로서 그의 음악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는 'The Great Adventure', 'Dive', 'Speechless', 'Live Out Loud'가 그의 시그니처이기도 한 통통 튀는 일렉트릭 사운드가 아닌 어쿠스틱 버전으로 '재창조(recreation)' 되어 수록되었다. 단순히 어쿠스틱하게 연주했다 기보다는 각각의 곡에 딱 맞는 새로운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처음 그의 음악을 접하는 분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변주다.

거기에 “나 S.C.C야”라고 하는 듯한 'Do Everything' 같은 신곡들도 수록되

어 있어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앨범이다.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Champion Young People'

예수전도단 화요모임의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온다.

새로운 싱글 '성령 하나님의 라이브 레코딩이 얼마 전 진행되었다는데 가장 마지막 앨범이 2022년에 발매되었던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이니 이제 새로운 앨범을 기다릴 만큼 충분히 기다리지 않았나 싶다.

새소식은 그쯤해두고 오늘 소개할 앨범은 '하나님께서서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지금도 선교의 주체로 부르고 계시며, 이 앨범을 듣는 모든 이에게 “챌피언”이라 말씀하시는 하나

님을 만나게 되기를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소개하는 앨범 'Champion Young People'이다.

두개의 트랙이 수록된 이 싱글 앨범에는 이지영 간사가 쓰고 부른 '아름다운인영광'과 함께 지금까지 수없이 리메이크된 로빈 마크(Robin Mark)의 명곡 '지금 은 엘리야 때처럼(Days Of Elijah)'이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특유의 강렬하고 모던한 편곡으로 수록되어 있다.

노래도 좋지만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해 택했던 모세와 다윗처럼 지금도 주님의 일을 위해 택함 받기를 소망하는 이들이 “챌피언”으로 쓰임 받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더해 추천해 본다.

김진영 기자

###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수영로교회 4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시선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25 생방송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2025년 11월 18일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11월 18일 3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울림(43회) 30 TV강단 하늘빛광성(박경수)	10 성경 속 전경사-에피소드 30 복음강단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지구촌-김우준 30 생명의 말씀 덕천-김경년	20 율령스토리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165회) 50 [말씀] 권혁민 목사(서드교회)(183회)	00 생명의 양식 정윤(유성택) 30 말씀의 능력(전태식)(557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노변담화(962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스 신약(29회)
	7:00	00 CTS뉴스 20 생명의 말씀 대전한빛-백용현 50 생명의 말씀 영광제일-이기용	10 조종민 목사의 답답답 20 사랑의 메시지 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목사 50 사랑의 메시지 원남교회 권기용 목사	30 잇쉬의 사재(1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492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72회)	00 청주금천교회 주일예배실황 신경민 목사
	8:00	20 내가 매일 기쁘게 정은지 집사	20 김승욱 목사와 함께하는 신앙특목 30 채인지 더 월드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25년 11월 18일 20 [말씀] 이광원 목사(수영로교회)(651회)	00 하나님의 음성(85회) 20 CBS 성서학당 (김기석)(4386회) 마태복음 5장	00 선교지에서 온 편지(13회) 케냐 오지에 심은 복음의 씨앗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스 50 믿음의 리액션(5회) 부산광역시
	9:00	10 두란노 성경교실: 예수로 읽는 성경 시편 8장 권수경 목사	30 비전설교 라이프처치 심성수 목사	00 [말씀] 홍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무브먼트)(94회) 40 Q&A 107 소외리문답(47회)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14회)	10 새롬게하소서(11365회) 개그맨 최홍림 1부	30 성지가 좋다(505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6부
	10:00	00 오마이갯생(4회) 20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원유경 목사	00 2025 다니엘 기도회	20 뎀바이블(3회)	00 CBS NEWS 10 20 성지가족(12회)	00 내 삶의 행복(182회)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오후	11:00	00 7000미라클 - 예수사랑여기에 스페셜 (서울역공동체교회, 이형춘 목사 / 이원욱 목사) 5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00 사랑의 메시지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30 비전설교 새문안교회 이상학 목사	10 [말씀]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250회) 50 예수동행일기(22회)	0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94회)	00 소문난 성경교실(583회) 주윤석 목사 두 번째 5강 인생 후반전의 믿음 - 혼자보다는 함께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502회) 50 복음강단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
	12:00	00 CTS뉴스 20 신앙예세이 30 생명의 말씀 군포제일-권태진	00 GOODTV 뉴스 30 행복한 쉼터 풍성한교회 김성근 목사	1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회) 20 [말씀]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318회)	00 감신대 화요채플(57회) 30 TV강단 포이에마예수(신우인)	20 말씀의 창 은정강리교회 최상일 목사 50 비전메시지 큰은혜교회 이규호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 안양서부-전승환 30 [CTS 30년 믿음의 명작] 내 영혼의 찬양 회복	00 비전설교 중앙성경교회 한기채 목사 30 선교의 땅 나가사키를 가다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225회)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42회)	00 율포원(685회)	30 비전메시지 청주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
	14:00	00 [생방송] Calling GOD(2382회) 50 내가 매일 기쁘게 구자역 목사 & 신승주 사모	00 2025 다니엘 기도회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25년 11월 18일 2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835회)	00 말씀의 힘 수원목양(유태민) 30 새롬게하소서(11029회) 공취 정지민 1부 1부	00 감삼환 목사의 칠 년을 하루같이(139회) 40 성경 속 전경사-에피소드
	15:00	40 7000미라클 - 예수사랑여기에 스페셜 (서울역공동체교회, 이형춘 목사 / 이원욱 목사)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곰	00 [말씀] 김한오 목사(메들교회)(305회) 40 생명의 삶 2025년 11월 18일	20 CBS 성서학당 (신우인)(3375회) 출애굽기 34장	00 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실황 김다위 목사
	16:00	30 생명의 말씀 분당햇불-이재희	00 황덕영 목사의 비전메시지 30 행복한 쉼터 평택성원교회 박충권 목사	00 하용주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61회) 4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회) 50 [말씀] 도지원 목사(예수비전교회)(112회)	1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29회) 5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94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저녁	17:00	00 수영로의 시간 이규현 50 신앙예세이	00 솔직함 새가양들의 토코쇼 저 새가양 20 사랑의 메시지 충만한교회 임다윗 목사	30 [말씀] 박신용 목사(열바인온누리교회)(276회)	50 영혼의 양식-구세군대한본영	00 월드비전과 C채널이 함께하는 희망터치(29회)
	18:00	00 생명의 말씀 산본양문-정영교 30 부흥 여가인 여수 여전제일교회	00 리바이즈 헤리티지 10 행복한 쉼터 순복음금정교회 김형근 목사 40 더 깊은 울림 한성 워십	10 휴먼넥트(56회) 50 THE NEW 하늘빛항기(5회)	00 TV강단 용인송전(권준호) 30 TV강단 여의도침례(국명호)	00 말씀의 창 홀리씨즈교회 사대천 목사 30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코쇼 : 차트(28회) 성경에 나오는 강력한 기도 베스트 5
	19:00	20 CTS스페셜 큐지컬 유다	00 장상길 목사의 성령의 장미비	30 구약의 세계로 <오십쇼>(1회)	00 이영훈목사의 땅끝까지 복음을(584회) 30 TV강단 용인비전(신용수)	00 비전메시지 개명교회 김도경 목사 30 말씀의 창 영광교회 윤보환 목사
	20:00	30 생명의 말씀 송도가나안-김의철	00 2025 다니엘 기도회 생방송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11월 18일 20 CGN라이브워십 <다시서 찬양하> - 화요성경집회-(3회) 40 너답게-회복프로젝트(63회)	00 CBS비전특강 윤자복 목사의 종말론 특강 50 크리스천칼럼. 인천제일(이제일)	0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263회) 10 복음강단 오송하늘문화교회 이재수 목사 40 말씀의 창 서울제일교회 최봉수 목사
	21:00	00 우리 교회는 지금(23회) 50 CTS뉴스	00 GOODTV 뉴스 20 GOODTV 시네마 누가복음 1부	00 성당교회 주일예배 2025년 11월 18일	00 CBS 성서학당 (김기석)(4386회) 마태복음 5장 50 살롬 신평(11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46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예수로 읽는 성경 시편 8장 권수경 목사	2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50 다큐 더 로드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25년 11월 18일 3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 패밀리(81회)	00 CBS NEWS 10 20 새롬게하소서(11365회) 개그맨 최홍림 1부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338회) 20 소문난 성경교실(580회) 주윤석 목사 두 번째 2강 인생 후반전의 믿음 - 하나님의 초저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스 구약(29회)
저녁	23:00	10 CTS 30년 믿음의 명작 - CTS특집다큐 성지순례 메시아	10 행복한 쉼터 율렛교회 안호성 목사	10 카일 아이들만의 포도나무와 가지(6회) 40 생명의 삶 2025년 11월 18일 5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회)	10 2024 한소망교회 감사 부흥회(9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72회)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233회)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24:00	00 Calling GOD(2382회)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사랑의 메시지 순복음중동교회 김경문 목사 40 선교의 땅 우간다를 가다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23년 11월 18일 20 [말씀] 반태효 목사(방주교회)(91회)	10 성지가족(12회) 50 성경풀집 이것이 궁금하다(77회)	00 한소망교회 한밤의 기도회(89회) 40 성경 속 전경사-에피소드
	1:00	00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원유경 목사 40 원더풀우먼(3회)	10 사론의 꽃 필 때	0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650회) 4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생물교회)(249회)	00 소망의 말씀 (김경진)(307회) 40 CBS 비전특강 윤자복 목사의 종말론 특강	00 선교는 지금 2(123회)
	2:00	30 백세목장 시즌3 박호근 목사 7강	10 GOODTV 특별간증	20 [말씀] 김형석 목사(지구촌교회)(194회)	30 TV강단 승리(박규성)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3:00	00 두란노 성경교실: 예수로 읽는 성경 시편 8장 권수경 목사 50 이영훈 목사의 율령스토리	00 GOODTV 오늘의 찬양 10 생명양식 데일리큐티 20 새벽을 깨우는 말씀 꿈의교회 김학찬 목사	00 [Global Sermon] Kyle Idleman's Be The Branch(6회) 30 [말씀] 양춘길 목사(팔그림성교회)(605회)	00 율포원(233회)	00 세미한교회 주일예배실황 이은상 목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서임중 목사 30 네 영혼의 찬양	00 GOODTV 오늘의 찬양 10 생명양식 데일리큐티 2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인천제2교회 이강영 목사	10 [말씀] 박찬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618회)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4385회) 고린도전서 12장 50 CBS 교회소식(1025회)	00 클래식 말씀의 창(22회) 김상복 목사 30 C채널 명설교 다시 복음으로(41회)





## 자원영토 확장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나갑니다

한국석유공사는 대한민국 동해 및 서·남해 지역에서 광범위한 석유탐사를 추진해 자원영토를 넓혀 나가는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석유공사는 에너지 수급에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 에너지 안보를 수호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